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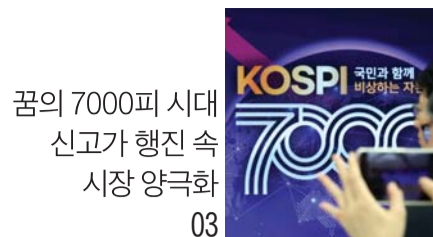


7일 Market Index			
	코스피 7490.05 (+105.49)		코스닥 1199.18 (-10.99)
	금리 (연율) 3.546 (-0.049)		환율 (원/달러) 1448.40 (-6.70)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물가·국채 동시 꿈틀... 전 세계 '인플레이 공포'

중동발 신용등급 강등 기업 '도미노 부도' 온다

올해 韓 물가전망 2.5%, 0.2%p ↑
韓, 물가·금리 상승 '패닉' 우려에
정부 "범부처 차원 물가안정 대응"
美 국채금리 파멸 마지노선 5% 넘고
유로존은 '스태그플레이션' 고개



계란가격 강세 지속

소비자가 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고르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2.6% 상승한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1%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축산물은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닭고기(6.3%)와 계란(6.4%)은 가축전염병 여파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449만개를 수입해 공급하고 육용 종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고, 할인 지원을 병행한다. /뉴시스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을 고
민할 때가 됐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인플레이
션 상승과 경제적 피해의 위험이 커지
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정
책 가이드라인 제공 능력을 제한한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세계 경제가 중동전쟁(고유가)과 인
공지능(AI) 투자 확대발 인플레이션 공
포에 빠져들고 있다. 금리도 꿈틀대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주요 국
채 금리는 과거 금융위기 수준 가까이
치솟으며 '국채 발작'을 보인다. 시장
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과 재정 지출, AI 투
자(올해 글로벌 빅테크 5개사 예상지출
7250억달러) 확대 등에서 나온 '구조적
압력'으로 해석한다.

7일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따
르면 4월 주요 기관 3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
은 2.5%다. 3월 말 2.3%에서 한 달 새
0.2%포인트(p) 올랐다.

실제 물가도 꿈틀대기 시작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
수는 1년 전보다 2.6% 뛰었다. 2024년 7
월(2.6%)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미국과 유로존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었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
수는 3.5% 올랐다. 물가는 금리를 자극

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미
국 10년물 국채금리도 6일(현지시간)
연 4.35%대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4일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연 5.017%를
직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마
이클 하넷 최고투자전략가는 보고서
에서 “30년물 금리 5%는 마지노선이라
며, 이를 넘어설 경우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로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스태
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
가 고개를 들었다. 4월 물가가 유럽중앙
은행(ECB) 중기 목표치 2.0%를 넘어
3.0%를 기록한 반면 1분기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짓지 않는
다던 개(인플레이션)가 다시 짚기 시작
한 것'으로 비유한다. 국제통화기금(IM

F)은 2013년 4월에 나온 '세계 경제 전
망'에서 물가를 '짓지 않던 개(The Dog
That Didn't Bark)'에 비유하면서 물
가 급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세
계에 촉구한 바 있다.

물가가 급등하면 '기준금리 인상→한
계 차주(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연쇄 부도→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해 특히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커
진다. 프랑스계 투자은행(IB) 나티시스
(Natixis)는 한국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지적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나티시스는 “한국 경제
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고 진단했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뛰면 자산시장

이 패닉에 빠질수도 있다. 제이미 다이
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는 지난 6
일(현지시간) 연례 주주 서한에서 금리를
“거의 모든 자산 가격에 작용하는 중력”
에 비유했다.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
될 경우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발걸음도 바빠졌다. 재정경제
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며 “석유류를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물가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민생밀접 품
목들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허정윤·신하은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노사갈등, 주주·정부까지 확대... '경영 리스크' 부상

◆삼성전자 초격차의 역설

② '파업 예고' 파장

사측, 1분기 DS부문 10.2조 집중
2나노 전환 예약 등 '역대급 투자'
부회장 “미래 경쟁력 손실 막아야”

삼성전자 총과업을 둘러싼 갈등이 노
사를 넘어 주주·정부·이사회까지 번지
면서 경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오
는 21일 총과업 예고를 2주 앞두고 사측
내부에서도 잇따라 경고 메시지가 나오

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
장(DS부문장)과 노태문 DX부문장은
각각 사내 공지를 통해 “열린 자세로 협
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미래 경쟁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신재윤 이사회 의장도 사내 게시판을 통
과업으로 인한 손실이 급진적 피해를 넘
어 고객 신뢰와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사외이사들도 이사회
에서 파업이 기업가치와 수백만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화를 통

한 해결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경영 리스크를 강조하는 배경
에는 역대급 투자 부담도 있다. 삼성전
자는 올해 1분기에만 연구개발(R&D)
에 1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시설투자
(CAPEX)도 11조2000억원으로 이 중
91%인 10조2000억원이 DS부문에 집중
됐다. HBM4E 양산 준비와 2나노 공정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미 예약돼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 재원까지 늘리기
어렵다는 게 사측 논리다.

주주단체는 노조와 사측 경영진 양
측 모두를 압박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7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강행 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고, 사측이 부당한 성
과급 협약을 맺을 경우 경영진에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민경권 대표는 “삼성전자는 500만 국
민 주주의 자산과 미래 연금이 담긴 국
민기업”이라며 “국가경제 뇌관을 해소
할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
라”고 호소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나경원 “제왕적 의회 멈추는 것이 진짜 개혁 출
발점” /사진 뉴시스
▲오세훈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시민 주거
불안 해소”

▲조국혁신당, ‘생명 골든타임 책임병원’·‘AI 보
디가드’·‘디지털 F5’ 공약 발표
▲국힘, 박성준 ‘국민 공소취소 뜻 몰라’ 발언에
“오만한 모욕” “역대급 망언”

▲국힘, 청와대 앞서 최고위 열어 ‘특검법’ 규탄...
“국민 무섭지 않나”
▲지방선거 약재 우려에...여권서 ‘조작기소 특검
법’ 수정론 나와

李 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산업발전·자산증식 마중물 될 것”

32차 수석보좌관회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 꼽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점검
“성장의 과실·기회 함께 나눠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실제 종전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에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도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

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 모아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는 22일부터 판매될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국민의 손으로 첨단 전략 산업을 키우고 또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모두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 성장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투자는 우리 산업의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 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께서 모두의 성장을 향한 길에 동참하시고 또 그에 따른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하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 “1차 지급이 내일 마무리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를 잘해 준 덕에 지급 과정에선 혼란과 불편이 작았다고 한다”며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남은 기간 사전 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 1면 ‘노사갈등, 주주·정부’서 계속

각계각층 파업 우려 표명 직접 손실 30조 전망도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전날 14.41% 급등했고 이날도 장중 4.14%까지 상승했다. 다만 씨티그룹 등 글로벌 IB에서는 노사 갈등에 따른 성과급 총담금 부담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등 파업 리스크는 여전히 불확실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노동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발언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공개 석상에서 반도체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9.3%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 같은 각계 압박에 대해 노동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 측이 강경한 데는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경제적 부가가치(EVA)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고 초과 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을 연봉의 50%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체계를 운영하며 상한선까지 폐지한 상태이다. 이에 같은 반도체 업황에도 성과급 지급 방식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다는 분석이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직후 텔레그램을 통해 “LG(유플러스)보고 하는 소리”라며 “우리처럼 15%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여론 악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는 단순한 임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측이 독점해온 성과급 산정 기준의 투명성 공개가 협상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손실이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설계된 초정밀 공정으로, 가동이 멈출 경우 설비 재가동과 수율 복구에 상당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달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검증용 샘플을 전달하며 퀵 테스트에 돌입한 HBM 4E 일정이 밀릴 경우 어렵게 회복한 글로벌 HBM 리더십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 인근에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5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수급위기 성공적으로 극복”

산업부, 물가억제·민생부담 완화 무게
“정유업계의 정당한 손실 100% 보전”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속에서도 국내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누적된 인상요인을 고려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민생 부담 완화에 무게를 뒀다.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4차 가격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휘발유는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의 엄중한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2%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쟁 발발 이후 3

월 2.2%에서 4월 2.6%로 가팔라졌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석유류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22%나 급등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운용을 통해 약 1.2%p의 물가 하락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제도적 통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8%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석유 제품 가격 역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200원, 경유 2500원 수준까지 올랐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는 400원 이상 누적 인상 요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신학 산업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

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기민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동결이 장기화되면서 정유업계 적자 규모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손실에 대해 100%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제1원칙”이라며 “5월 중 법률·회계·석유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유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정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가동된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통해 원유와 나프타 수급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원유의 경우 UAE 특사 물량(총 2400만 배럴)이 성공적으로 도입 중이며, 정

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빌려주는 ‘비축유 스왑(SWAP)’을 통해 공급 차질을 완화했다. 5.6일 기준 약 1650만 배럴 규모의 스왑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5~7월 사이 예년 대비 80% 이상인 약 2억 1000만 배럴의 원유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 차관은 “5~7월 평균 원유 확보량은 약 7000만 배럴로 전년 대비 80% 이상 수준이며, 나프타 역시 평시의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사우디(2.5억 배럴), 카자흐스탄(1800만 배럴), 오만(500만 배럴) 등 특사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차액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스왑 운영 기간도 7월까지 연장을 검토하는 등 도입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구윤철 “석유최고가가격제, 물가방어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민생밀접품목 일일점검·집중관리

정부는 석유최고가가격제(공급가 상한)가 물가 방어 측면에서 상당 부분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까지 치솟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4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6% 올랐다.

정부는 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회의를 갖

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평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관계장관 TF를 중심으로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점검 및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그간의 석유최고가가격제 시행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상당 폭 흡수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 기간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물가 상방 압력은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재경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중동전쟁 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석유류 상승 압력이 높았으나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등에 힘입어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석유최고가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3월 물가 상승률은 2.8%, 4월은 3.8%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미시행시 휘발유 값은 리터(ℓ)당 2200원, 경유 값은 2800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국내 물가 상승 폭은 주요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3월 기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일

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2%대 중반~3%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주유소 현장점검 강화, 매점매석 행위 무관용 대응, 대체원유 확보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수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취약부문 유류비 지원 등 추경 사업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가공식품 등 민생밀접품목도 집중 관리한다. 이달 5~6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경로별 자체 할인행사를 병행 추진한다. 특히 우려 품목에 대해 선 수입 다변화 및 정부비축 방출 등 공급물량 확대를 추진한다.

/세종=김연애 기자 kys@



metro

반도체에 기댄 신고가 행진... 쓸림·빚투 불안 커졌다

② 상승장 속 시장 양극화

“원래 코스피 7000, SK하이닉스 160만원이면 일부 차익실현하려 했는데 막상 50만전자, 300만닉스 얘기가 나오니 팔기는커녕 더 사야 하나 싶어요.” 40대 개인투자자 황모씨는 최근 주식 계좌를 볼 때마다 반도체 대장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못산 ‘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느낀다고 했다. 평소 주식을 하지 않던 60대 김모씨도 “예금 만기가 한 달도 안 남았지만 3%대 이자 받고 기다리기에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인다”며 중도 해지를 고민 중이다.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43% 상승한 7490.05에 마감했다. 이제껏 가본 적 없는 코스피 7400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수만 풍년’이다.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대한 과도한 쓸림으로 국내 증시의 구조적 취약성은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최고치에도 하락 종목 우세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 견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 45% 내수·중소형주 소외 속 K자형 장세 보유 종목 따라 수익률 양극화

시중 멍청돈도 반도체에 쏠려있다.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의 3배를 넘는 ‘K자형 증시’ 형태를 보이자 뒤늦게 증시에 뛰어들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반도체 나홀로 이끄는 증시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73.80%로 주요 20개국(G20)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튀르키예에 BIST100(30.26%), 일본 닛케이225(21.22%), 브라질 보베스파(16.91%)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미국 S&P500과 나스닥 상승률도 각각 7.59%, 11.17%에 그쳤다.

상승의 중심에는 단연 반도체가 있다. 7일 오후 2시20분 기준 코스피 시가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7000p를 돌파한 지난 6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축하행사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비중은 25.80%, SK하이닉스는 19.21%로 두 종목만 합쳐 45%를 넘었다. SK스퀘어까지 포함하면 시총 상위 3개 종목을 비중은 47%대에 달한다. 이날 지수 상승 기여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다. 삼성전자의 지수 영향은 24.9705포인트, SK하이닉스는 39.1382포인트로 집계됐다. 두 종목의 지수 영향만 64포인트를 넘는다.

사실상 ‘반도체 주가=코스피’란 분석이 나올 정도다. 역대급 불장에도 내수주·중소형주가 소외되는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하락 종목이 더 많을 정도로 특정 종목 쓸림이 심한 상황”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투자자 수익률 편차도 커지고 있어 시장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들이 느끼는 실질 체감지수와 지수 흐름 간 괴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쓸림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S&P 500에서 AI 관련 기업 비율은 약 45%인데, 이는 챗GPT가 출시된 2022년 말(약 25%)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국내만도 반도체 기업 TSMC가 전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쯤

이다. 일본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어드밴티스트와 컴퓨터 칩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일렉트론을 합친 비율이 전체 시가총액의 20%를 차지한다.

김동영 삼성증권 수석 연구위원은 “코스피 업종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며 “반도체 업종이 AI(인공지능) 수요 폭발과 역대급 실적으로 반등장을 주도했지만 그 외 업종들은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AI에 투자한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아 ‘AI 거품론’이 확산될 경우 시장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토니파스칼렐로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부문 책임자는 “최근 반도체 주요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은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며 “급등 후 급락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개미들의 빚투도 반도체에 쏠려있다. 삼성전자의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3조2140억원으로,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1조7197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기간 신용용자 잔액이 9818억원에서 2조2690억원으로 약 1조2872억원 늘어나며 131% 급증했다. 반도체 랠리 속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도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는 물론 자동차·조선·방산·로봇 같은 대형 수출주요의 ‘쓸림’이 심한 만큼 대외 변수에 대한 취약성도 따라 커졌다.

박연주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 상승에서는 반도체가 더 핵심적인 요인”이라며 “AI 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고,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은 자금 유입을 가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및 국장’ 체질 개선 나서야

자본시장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가계·기관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연결해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한다. 유동성을 제공해 투자리스크와 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경영 감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 시장 기반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자본시장에 활력이 도는 건 좋은 신호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제 전반이 건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판판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한국 주식 자산 효과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는 주식 투자로 1만원의 수익을 내면 이 가운데 약 130원만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320원, 일본은 220원, 독일은 380원이 소비로 이어진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주식 수익이 소비보다 부동산 매입으로 흘러가는 구조도 확인됐다. 한은은 무주택 가계의 경우 주식 이득의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한다고 분석했다. 주식시장 상승이 내수 소비 확대와 기업 매출 증

가로 이어지는 전통적 자산효과가 한국에서 제한적이라는 뜻이다. 전체 주식 자산의 73.2%가 상위 20%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자산효과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미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고자산층에 주식 자산이 몰려 있어 주가 상승분이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축포가 화려할수록 불안의 그림자도 짙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림자는 ‘다음’이다. 반도체 다음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산업이 없다는 얘기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8% 늘어난 2199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중 약 35%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5%였고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2% 늘었다.

대장주 신용잔고 가파른 증가 AI 거품론 확산 땀 급락 가능성 주가 상승분 소비 연결은 제한 자본시장과 실물경기 괴리 확대 차세대 성장 산업 부재 부담

1분기 경제성장률(실질, 계절 조정)에서 확인된다.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1분기 성장의 대부분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수출이 이끌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분 중 반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로 잠정 집계됐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크게 뛰어넘으면서 성장률도 2월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더 멀리, 더 높이 뛰려면 그림자를 지워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온도 차이, 반도체 쓸림 현상이 노출하고 있는 K자형 성장도 극복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고양특례시의회
Goyang Special City Council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과 화합,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www.goyangcouncil.go.kr

AI시대 새로운 도약 준비... 차세대 메모리 포트폴리오 확대

SK하이닉스의 대변전
AI시대의 총아로

③ HBM 이후를 겨누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춰 고성능 메모리 설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통해 관련 시장을 주도해 온 데 이어 커스텀 HBM,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 등 고객 맞춤형 차세대 메모리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AI 시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분주하다.

HBM 시장 개척 후 AI 고객사와 협력 HBM4 개발서도 시장 주도권 이어가 SK 편입 후 공격투자로 경쟁력 쌓고 2016년 메모리 호황기 기회 잡아 커스텀HBM, AI-D 등 新 설루션 제시 '넥스트 HBM' PIM부터 CXL 투자

SK하이닉스가 현재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까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배경에는 HBM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 경쟁력과 고객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회사는 세계 최초로 HBM 개발에 성공하며 관련 시장을 개척한 이후 HBM3와 HBM



SK하이닉스 이전 M16 전경.

/SK하이닉스

M3E 양산을 통해 주요 AI 고객사와 협력 기반을 넓혀왔다. 차세대 제품인 HBM4 개발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며 시장 주도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1c) 미세공정을 적용한 16Gb DDR5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차세대 D램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HBM을 비롯해 DDR5, 기업용 SSD(eSSD)까지 AI 시대 핵심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에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는 HBM4 주요 고객사와 공

급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 체제까지 구축한 HBM4는 고객사들이 요구한 성능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11 Gbps를 웃도는 데이터 처리 속도를 구현했다.

오늘날 SK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는 AI 메모리 경쟁력의 밑바탕에는 장기간 이어온 투자와 기술 축적이 자리하고 있다. 그 출발점은 메모리 시장이 슈퍼호황기에 접어들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데이터센터와 고성능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가 급증했으나 미세공정 전환의 어려움과 공급 업체

들의 투자 부담으로 공급은 제한적이었 다. 2012년 SK 편입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편 및 확대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던 SK하이닉스는 기술력과 양산 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을 쌓아와 적시적 기에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를 적극 맞추며 시장 확대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회사는 서버용 SSD 제품을 중심으로 신규 공정을 확대·적용해 급증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했다. 동시에 고용량·고 사양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지속 개발해 기술력을 증명했다. 실제 SK하이닉스는 2017년 72단 3D 낸드플래시 및 GDDR6 그래픽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2018년에는 국제반도체표준협회(JEDEC) 규격을 적용한 DDR5 D램 개발 및 CTF 기반 96단 4D 낸드플래시를 잇달아 개발하며 기술 이정표를 쌓아왔다.

HBM 신화를 뒤이은 차세대 메모리 설루션 제품 개발에도 한창이다. 과노정 사장은 지난해 열린 'SK AI 서밋 2025'에서 커스텀 HBM, AI D램(AI-D), AI 낸드(AI-N)를 새로운 메모리 설루션 방향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커스텀 HBM은 고객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GPU, ASIC에 있었던 일부 기능을 HBM 베이스다리로 옮긴 제품으로 데이터 처리 성능을 극대화하고 HBM과 의 통신에 필요한 전력을 줄여 시스템 효

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넥스트 HBM으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세싱인메모리(PIM)는 저장과 연산의 경계를 허문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 제품이다. SK하이닉스는 자사 PIM 제품인 'GDDR6-AiM'을 이미 출시한 바 있고 이 제품 여러 개를 연결해 성능을 높인 가속기 카드 'AiMX'도 2023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용량을 2배 늘린 AiMX 32 GB 제품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CXL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CXL은 CPU, 메모리 등 장치별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합하는 기술이다. 회사는 올해 4월 CXL 2.0 기반 D램 설루션 CMM(CXL Memory Module)-DDR5 96GB 제품의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고 공개했다. 지난해 9월에는 CXL 최적화 소프트웨어인 'HMSDK'의 주요 기능을 오픈소스 운영체제 리눅스(Linux)에 탑재, CXL 기술 활용의 표준을 정립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속적인 차세대 기술, 제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생산기지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구남영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CU 가맹점주, 화물연대에 14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BGF리테일, 물류 피해 가맹점주 100억 규모 최종 지원안 확정에도 가맹점주-노조 2차전 확전 양상

지난달 전국적인 물류 차질을 빚었던 편의점 CU의 배송 거부 사태가 가맹본부의 대규모 지원책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가맹점주들이 화물연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점주와 노조 간의 '2차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7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4월 발생한 물류 파업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위해 총 100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최종 지원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이번 지원안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화물연대 CU지회의 물류센터 봉쇄 및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영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과 화물연대 간 갈등이 격화되며 물류 배송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의 한 CU 편의점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간편식 결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BGF리테일은 해당 기간 발생한 저온 상품의 결품에 대해 정상 판매 시의 매출 이익 전액을 지급하고, 폐기된 간편식의 원가

도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또한 물류 차질 정도에 따라 점포당 최대 100만원의 위로금을 차등 지급하며, 이는 오는 8일 각 점포 정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초 이번 사태는 지난달 29일 BGF로지스와 화물연대가 운송료 7% 인상 및 유급 휴가 보장 등에 합의하며 종결된 것으로 보였다. 특히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사망 사고라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겹치며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노사 간의 합의는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으로 읽혔다. 가맹본부 역시 발 빠르게 보상안을 내놓으며 점주들의 달래기에 나섰다.

최종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반응"이라며 "평소 미 입고됐을 때 지원해주는 보상보다도 높은 기준이 적용됐고 대응도 빨라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를 상대로 총 140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협의회는 물품 미공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102억 8000만원과 점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7억 6000만원을 합산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들은 화물연대 측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오는 15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점주들의 불만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았다. 협의회는 본사인 BGF로지스에도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 화물연대 소속 기사의 배송을 거부할 권

리와 이에 따른 대체 기사 배정을 요구했다. 자신들의 생계를 볼모로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와 더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일종의 '배송 거부' 선언이다. 만약 대체 기사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로 배송 수령을 거부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노조가 합의를 이룬 뒤 점주들이 직접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CU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물류 현장에서 이미 노사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실질적인 배송 현장에서의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CU가맹점주협의회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노조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

롯데카드, 실적호조·노사화합... 영업정지 리스크 해소할까

1분기 순이익 222억... 전년비 2배↑ 내달 4.5개월 영업정지 중징계 최종결정

롯데카드가 지난 1분기 실적 반등과 노사 화합을 통해 정상화 기대를 키우고 있다.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금융당국의 4.5개월 영업정지 제재 리스크를 해소할 지 관심이 쏠린다.

롯데카드는 지난 1분기에 순이익 2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배(112.2%)가량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15억원으로 같은 기간 약 4배(201%) 급

증했다.

우량 고객 확보로 수익 기반을 마련해 영업이익을 늘리고, 대손 비용을 줄여 비용을 효율화한 결과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7일 "우량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고,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와 대손 비용 절감 등 비용 효율화를 통해 1분기 영업이익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터진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 814억원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084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분기에 는 손실실을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카드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원 수 역시 회복세다. 1분기 회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명 증가한 956만 6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직후 한달간 약 3만 명이 이탈했지만 이후 고객 보호 조치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지배력도 개선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롯데카드 시장점유율은

10.6%로, 직전 분기(11.0%)와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도 손을 잡았다. 지난 4월 정상화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에서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는 위기 극복과 직원들의 안정을 위해 사측과 공동으로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러 회복 지표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리스크는 여전히 번시다. 금융감독원이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 영업정지 중징계안을 확정하면서다. 제재안은 내달 금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국기업평가단체영수석연구원은 최

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리 강세로 인해 조달 비용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과거 발행한 고금리 채권 차환에 힘입어 지난해 평균 조달 비용률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신규 발행금리는 3% 초반에서 중후반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한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카드론 건전성 관리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휴플러스 구매카드대금에 대한 총당금 적립 수준도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총당금 적립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metro



여기, 새로운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낮선 땅 위에서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는 건,
긴 시간 다져온 본질의 단단함이
성장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026, 새롭게 도약하는 KT는
국민 모두의 일상이 명장면으로 채워지도록
힘껏 뛰겠습니다

AX Platform Company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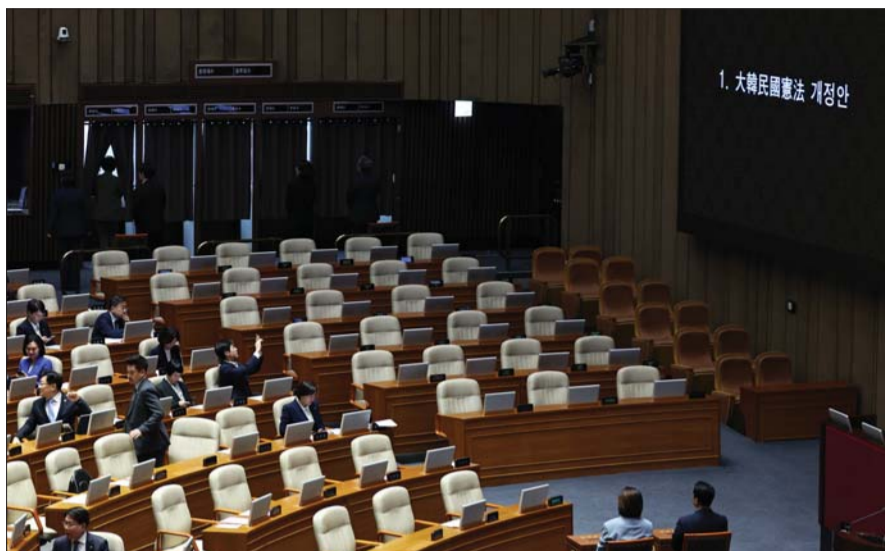
국민의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국회 개헌안 표결 불발

개헌안, 5·18 정신 헌법전문 등 담겨
국힘 “찬성하지만 지선 전은 졸속”
민주당, 추가 본회의 가능성 시사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개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86명의 3분의 2인 191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여야 6개 정당에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정당 의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도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개헌 추진은 정략적이라는 입장을 내며 반대 당론을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개헌안 투표에 불참했다. 이에 국민의힘을 제외한 총 178명의 의원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만 투표에 참여했고, 개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전 헌법이 개정되면 안 된다며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되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본회의 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표결을 위해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며 국민의힘의 개헌안 표결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이미 12·3비상계엄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과거의 비극을 겪고도 아무런 제도적 보완 없이 넘어간다면, 훗날 더 큰 위기 앞에서 왜 그때 고치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에서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하는데, 국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어떻게 선거용이 될 수 있나. 민주화 운동의 전문 수록과 선거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연임·중임을 언급하며 영구 독재라는 이야기도 한다.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여는 오히려 독재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두루 형성된 의제들이다. 더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드렸다. 개헌은 필요하다”며 “AI 시대 인간의 존엄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 인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한다”고 했다.

다만 “일부 합의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개헌을 하겠다는 건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 개헌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건 ‘졸속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특검도 밀어붙여 하고 있다”며 “이런 자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에 맞지 않는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의 본령으로 되돌아와 달라”며 표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할 경우, 이튿날인 8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개헌안을 표결해야 한다. /서예진 기자·김보민 인턴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與 특검법 맹공한 국민의힘 “대통령 범죄 지우기”

靑 사랑채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반발하며 원천 무효 주장

국민의힘은 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지도부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공소 취소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안에 있는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불법 대복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파렴치한 범죄들”이라며 “그러니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아예 지우겠다는 것”이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 했다.

송연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지금 와서는 ‘대통령 범죄 없애기 특검법’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한다”며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대통령 범죄 세탁’을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께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본인 5년 입기 후에 반드시 재판받겠다. 대통령 입기 중에 공소 취소라든지 본인의 죄와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민주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독재의 길을 멈춰서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지방선거 이후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침묵하지 않는 것이 국민 여러분의 삶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이재명 피고인과 그를 따르는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공소 취소 특검은 바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고자 하는 특검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피고인의 죄를 없애려는 무지막직한 ‘지우개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아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이렇게 판단했을 것이다. ‘지금 개헌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데 국민 반응이 없다. 조용하다. 그렇다면 죄 지우기 특검법도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다. 국민들은 공소 취소 뜻도 모를 것이다.’ 이런 오만하고 나쁜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추경 집행률 47% 중기 지원도 본격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80% 지급

정부가 7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47%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4조8000억원 중 약 80%인 3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도걸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과 테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예산처에서 추경 집행 상황을 보고했다. 4월 말 기준으로 신속 집행 10조5000억원 중 5조 원을 집행해 약 47%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며 “전체 예산 4조8000억원 중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고에서 나간 것이 3조8000억원이어서 약 80%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속한 추경 예산 집행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예산’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안 간사는 “원래 추경이 확정돼야 (지역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성립 전이라도 국고 자금만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되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기획예산처에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 상황 보고도 이뤄졌다. 안 간사는 “수출 바우처 제도와 관련해 2079개사에 849억 원을 지원하는 선정 절차가 완성됐다”며 “어제부로 해서 중소기업 긴급 경영 자금을 1294억원,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604억원, 도합 1898억원이 실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제공됐다”고 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정청래 “여러분 승리가李 정부 성공”

與, 고양서 공천자대회 개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여러분의 승리가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6·3 지방선거 후보들을 격려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공천받은 340여명 후보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은 2026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소명”이라며 “여기 계신 후보들께서는 이번 6·3 지선을 승리로 이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온 국민이 빛과 혁명을 통해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이어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의 잔불은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

다”며 “윤여계인 공천을 통해 아직까지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진숙이 웬 말이고 추경호가 웬 말인가, 그리고 정진석은 또 웬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경기도지사 추미애·제주도지사 위성곤·인천시장 박찬대 등 후보를 비롯해 인천 계양을 김남준·연수갑 송영길 후보 등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여러분이 그 길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인천제주 공천자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손보사 핵심 체력 '기본자본'... 배당·투자 여력 등 따져본다

내년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손보사, K-ICS 권고치 웃돌지만 자본 내용·활용여력 등은 제각각 기본자본 50% 미달 시 시정조치

손해보험 대형사들의 지급여력(K-ICS) 비율은 모두 금융당국 권고치를 웃돌지만, 자본의 내용과 활용 여력을 뜯어보면 회사별 체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2027년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보험사 건전성의 핵심은 총량인 K-ICS 보다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얼마나 두텁게 쌓았는지, 그 자본으로 배당·자사주 소각·성장 투자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보험사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규제 기준 미달 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현행 K-ICS가 보완자본을 총 요구자본의 50%까지 인정하고 있어 자본구조의 질을 충분히 보여주지



Chat GPT가 생성한 손해보험사 K-ICS 이미지.

못한다고 봤다. 실제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 규모는 2023년 3조2000억원에서 2024년 8조7000억원, 2025년 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삼성화재는 가장 여유가 큰 축에 속한다. 삼성화재의 2025년 말 K-ICS 비율은 262.9%, 기본자본비율은 170.7%다. 가용자본은 29조3000억원, 기본자본은 19조원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삼성화재는 오는 2028년 주주

환원율 50%와 보유 자사주 비중 축소 계획도 제시했다. K-ICS 총량이 높을 뿐 아니라 기본자본이 두텁기 때문에 주주환원 여력까지 확보한 구조라는 해석이다.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와 결이 다르다. 2025년 말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 비율은 218.22%였고, 공시상 지급여력 금액은 21조5522억원, 기본자본은 8조6813억원, 지급여력기준금액은 9조8764억원이다.

총량 자체는 높지만, 삼성화재 처럼 기본자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 이라기보다 공시상 기본자본 절대규모와 요구자본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DB손해보험은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K-ICS를 200~220% 구간에서 관리하고, 이 구간이 유지되면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3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회복형에 가깝다. 현대해상의 2025년 말 K-ICS 비율은 190.1%, 기본자본비율은 65.9%였다. 절대 수준만 놓고 보면 규제 기준 50%는 넘겼지만 삼성화재 처럼 넉넉한 단계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개선 속도는 분명하다. 현대해상은 듀레이션 갭(자산과 부채의 금리 민감도 차이)을 2024년 1분기 말 -3.2년에서 2025년 말 -0.7년으로 줄였다. 수익성과 자본력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내놨다. 건전성 우량사라기보다 자본 복원과 ALM(자산부채종합관리) 개선으로 체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리츠화재는 높은 K-ICS에도 기본자본 구조를 따로 봐야 한다. 메리츠화재의 2025년 잠정 K-ICS 비율은 237.4%다.

오종원 메리츠금융 최고리스크담당자(CRO)는 “기본자본 비율이 82% 수준이고 2027년 제도 개정사항 반영 시 92%까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총량은 높지만 삼성화재 처럼 기본자본이 압도적인 구조라고 보긴 어렵다. 제도 변화와 자본구조 조정을 함께 봐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손보사 건전성 평가는 누가 K-ICS 200%를 넘겼느냐보다, 누가 기본자본 50%를 얼마나 넉넉하게 웃돌고 그 체력으로 주주환원과 성장 전략까지 감당할 수 있는냐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보험사 해외점포 순익 2억弗... 24% 증가

금감원, 작년 영업실적 2년 연속 흑자 생보사, 신규편입 실적에 71% 상승

지난해 보험사의 해외점포 실적이 2년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해외점포 실적은 신규 편입된 해외점포의 실적에 힘입어 70.8%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을 기록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9700만달러(약 280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1억5910만달러 흑

자에서 3790만달러(23.8%) 증가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개 보험사(생명보험 4곳, 손해보험 8곳)가 11개국에서 운영중인 해외점포는 총 46곳이다. 생보사 해외점포와 손보사 해외점포가 직전연도 대비 각각 한 곳 늘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의 해외점포 순이익이 신규 편입된 신규점포의 실적에 힘입어 1억97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530만달러(70.8%) 늘었고, 손보사는 동남아시아 권역 내 자연재해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740만달러(7.8%) 감

소한 8770만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억2160만달러 ▲미국 6640만달러 ▲유럽 900만달러 순이었다.

금감원은 “중동사태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기후변화에 따른 대재해 위험 확대 등 보험사 해외점포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 중인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해외점포의 경영현황 및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사에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 나서

은행권 최초 '온체인 모니터링' 구축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의 KYT(Know Your Transaction) 솔루션 '트랜사이트(TranSight)'를 도입하고 은행권 최초로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트랜사이트'는 블록체인상 거래 정보와 지급주소를 분석해 자금세탁,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신호를 점검하는 솔루션이다.

'온체인 모니터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된 거래 내역을 분석해 자금의 이동 경로와 지급 간 연관성을 점검한다. 기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계좌와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온체인 모니터링'은 블록체인 지급주소와 거래 흐름을 함께 살펴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환치기 등 범죄 수익을 이전하

나 은닉하는 데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돼 결제·송금 등 금융서비스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한은행은 관련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온체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트랜사이트 도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지급주소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과의 연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이 준비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역량을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접목해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도권 전세 2.2% 상승... 서울은 2.61% ↑

올해 전국 전세가격지수 1.56% ↑ 주간 상승세 서울 0.23%로 가팔라

올해 들어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들쭉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연초 이후 넉 달 만에 전세가격이 2% 이상 뛰었고, 작년 하락세를 보였던 지방도 벌써 1% 가까이 올랐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4월 기준 전국이 올해 들어 1.56%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0.0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수도권 전세가 2.20%나 올랐다. 상승률은 서울 2.61%, 경기 2.14%다.

주간 단위로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23% 올라 상승폭이 전주(0.20%)보다 0.03%포인트(p) 확대됐다. 문재인 정

부 당시인 2019년 12월 넷째주(0.23%)와 같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1월 셋째주(0.26%)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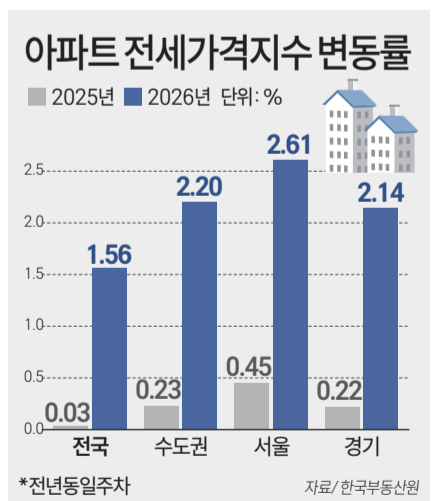
서울의 경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의무를 강화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임차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임차문의 증가하며 상승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세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격도 다시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구를 제외한 전역이 일제히 올랐다.

5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주 이후 65주 연속 상승세며, 전주(0.14%) 대비 상승폭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대단지·역세권 위주로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길음·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0.2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북구(0.25%)는 미아·번동 위주로, 동대문구(0.24%)는 답십리·전농동 위주로 상승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0.04%)만 하락세를 나타냈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국민카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KB국민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내부통제 관련 기본 방침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 전략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 심의·의결 ▲금융소비자 호보 관련 사내 위원회 운영 결과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반기 중 1회 이상 대면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필요시에

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하 모범관행)'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모범관행을 마련,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인을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이자 선제적으로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K-방산 글로벌 진격

로봇 등 유·무인 무기체계 고도화... 미래 전장 이끈다

美 AI 방산기업 안두릴 협력 확대

HD현대 무인수상정 설계·건조 계약
현대로템 지휘통제체계 구축 MOU
대한항공 한국형무인기 기술 고도화



브라이언 쉼프 안두릴 인더스트리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7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한국 방산·제조 기업들이 미국 인공 지능(AI) 방산 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손잡고 공중·해상·지상을 아우르는 AI 무인전력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HD현대에는 무인함정, 대한항공은 자율형 무인기, 현대로템은 유·무인 복합(MUM-T) 지휘통제체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기존 플랫폼 제작 역량에 안두릴의 소프트웨어 기반 자율 방산 시스템을 접목하는 흐름이다.

브라이언 쉼프 안두릴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빠르고 미래지향적이며 기술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함께 갈 수 있는 흔치 않은 파트너"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전장의 핵심 과제는 압도

적인 정보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며 "래티스를 통해 정보 처리에 소모되던 역량을 자동화해 지휘관이 핵심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제조 기업들은 이 래티스를 기존 플랫폼에 접목하며 안두릴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인 협력은 HD 현대와의 해양 무인체계 분야다. 양사

는 지난해 8월 무인수상정(USV) 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뒤, 11월 무인수상정 설계·건조 계약으로 협력을 구체화했다. 지난 2월에는 공동 개발을 위한 USV 기본 설계를 마쳤고, 4월 미국 해양항공우주 전시회(SAS 2026)에서 자율 무인수상함(ASV) 시제함 공동 건조 착수를 발표했다. 해당 시제함은 오는 10월 완공 후 미국 연안에서 시험 운항에 투입될 예정이다.

존킴 안두릴코리아대표는 HD현대와의 협력에 대해 "한국기업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가 제작한 무인기에 안두릴의 래티스를 탑재해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최근 국내 시험장에서 무인기 3대가 원격 조종 없이 자율비행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AI 기반 자율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물론 국내 생산 기반 구축과 수출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두릴과의 협력 범위는 해상과 공중을 넘어 지상 무기체계로도 넓어지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날 안두릴과 AI 기반 유·무인 복합(MUM-T) 통합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차량 'HR-세프라'와 다중보행 로봇 등 무인 플랫폼에 래티스를 적용하고, 향후 장갑차 등 유인 전투차량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통합 지휘통제체계는 드론 위협 대응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공중 정찰 드론이 적 드론을 탐지하면 관련 정보가 지상 기동무기체계로 전달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휘관의 대응 판단이나 요격 체계 운용이 이뤄지는 식이다.

앞서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도 안두릴과 미래전 무기체계 개발 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안두릴은 한국 기업을 단순 협력사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쉼프 CEO는 "한국에는 훌륭한 공급망이 있고, 규모 있는 양산과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한국을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적 조건과 파트너 적합성이 맞다면 지분 참여 등 자본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hedhale@metroseoul.co.kr



한화 방산 계열사, 한미방산 협력 구체화

美 국방 고위관계자 초청 간담회
투자·생산·기술분야 등 과제 논의

한화 방산 계열사들이 미국 국방 고위 인사단과 만나 그룹의 방산 역량과 글로벌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지상·항공·해양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미 방산 협력의 접점을 넓히고 투자·생산·기술 분야의 협력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지난 6일 서울 장교동 한화

빌딩에서 해리 해리스 전 미국 태평양 사령관과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 선임 장성급 인사, 미국 국방정보국(DIA) 고위 관계자 등 20여 명을 초청해 한미 방산 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측에서는 서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주요 경영진이 자리했다. 이들은 그룹 방산 부문의 글로벌 사업 현황과 비전, 주요 무기체계 역량을 소개하고 지상·항공·해양 분야에서 한미 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방향을 공유

했다.

미국 측 인사들은 한화의 방산 체계 역량과 글로벌 사업 확대 전략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화의 방위산업 역량이 한미 동맹을 뒷받침하는 주요 협력 축으로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리스 전 사령관은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 해군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미 태평양사령관 등을 지낸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전문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



해리 해리스 전 미태평양사령관(오른쪽에서 세번째)과 미군 선임 장성 등 고위인사단이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방대 시니어 펠로우이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한미 동맹은 한화 방산 사업의 근간"이라며 "미국 현지에서의 투자·생산·기술 협

력을 통해 양국 방위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측 고위 인사 간 신뢰를 다지고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스마트워치로 실신 위기 알린다 LS에코에너지, 초고압 케이블 상용화 속도

현대모비스 'PE 시스템' 내재화 성공

생체신호 분석 기술로 징후 예측

삼성전자가 실신예측을 85%까지 맞힐 수 있는 기술로 스마트워치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AI와 헬스 기능 고도화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중앙대학교광명병원과 공동 진행한 임상 연구를 통해 갈락시워치의 생체 신호 분석 기술로 '미주신경성 실신(VVS)'을 높은 정확도로 조기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7일 밝혔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현상이

다. 특히 예기치 못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 뇌출혈 등 2차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순환기내과 조준환 교수 연구팀은 미주신경성 실신이 의심되는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갈락시워치6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립경사 검사를 진행했다. 갈락시워치6에 탑재된 광혈류 측정(PPG) 센서로 환자의 심박변이도(HRV)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신 발생 약 5분 전에 84.6%의 높은 정확도로 미주신경성 실신 징후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실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세계 최초 사례로,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헬스 학술지 최신호에 게재됐다.

/차현정 기자 hyeon@

400kV급 하이엔드 제품 검증·인증

LS에코에너지가 400kV급 하이엔드 초고압 케이블 상용화에 착수하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초고압 케이블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존 230kV급을 넘어 제품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생산법인 LS-비나가 400kV급 초고압 케이블 국제인증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PQ는 실제 송전망 적용을 전제로 제품 성능과 장기운전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글로벌 대형 송전망 프로젝트 입찰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건으로 꼽힌다. LS-비나는

약 1년간 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LS-비나는 현재 230kV급 초고압 케이블까지 생산하고 있다. 400kV급은 그동안 LS전선이 생산해 온 대표 하이엔드 제품군으로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LS에코에너지도 본사급 초고압 케이블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된다.

LS에코에너지는 앞서 230kV급 케이블의 미국 인증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 400kV급 PQ까지 완료하면 글로벌 메이저 송전망 프로젝트 입찰 참여 범위가 넓어져 고부가 시장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LS에코에너지 관계자는 "400kV급 진입은 선진 시장 확대와 함께 수익성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상반기 120KW급 개발 완료 계획

현대모비스가 전기차의 핵심 구동장치인 'PE(Power Electric) 시스템' 내재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준중형차부터 고성능 스포츠카까지 전 차종 대응도 가능해졌다.

현대모비스는 고성능 250킬로와트(kW)급 PE시스템에 이어 160킬로와트급 범용 모델도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PE시스템 독자 모델 개발 과정에서 주요 부품을 공용화하고 이를 모듈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제품보다 무게는 가볍고 크기는 작아졌지만 힘은 강력해졌다.

올해 상반기에 소형 모델부터 특화된 120킬로와트급 PE시스템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유가 쇼크에 전기차 수요 급증 기아 내수·테슬라 수입차 '1위'

기아 현대차 제치고 28년만에 정상
전동화 모델 1만3935대 판매
테슬라 수입차 절반 가까이 차지
모델Y 프리미엄 9328대 팔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기아가 수입차 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내연기관과 친환경차의 고른 판매 상승에 힘입어 28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기아의 내수 1위 비결은 세단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경승용차, 목적기반차량(PBV)에 이르는 라인업을 확보한 덕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아는 지난 4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7.9% 성장한 5만5045대를 판매했다. 전동화 모델은 전년 동월 대비 131.3% 증가한 1만3935대를 판매했다. 반면 현대차는 같은 기간 5745대 판매에 그쳤다.

기아는 올해 들어 매월 전기차를 1만대 이상 판매하며 전동화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월별 추이를



기아 EV3.

보면 1월 3628대(전년 대비 483.3% 증가)를 시작으로 2월 1만4488대(210.5%), 3월 1만6187대(148.6%), 4월 1만3935대(131.3%)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한 물량 증가를 넘어 차급별 모델들이 시장에 고르게 안착하며 수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달 1만3190대를 판매하며 전체 수입차 판매량(3만3993대)의 절반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모델Y 프리미엄은 단일 트림 기준 9328대가 팔렸는데, 이는 2위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1481대)의 6.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통 강자 BMW 520(1191대)의 약 8배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있다. 지난달 국내 판매된 수입차의 연료별 판매량은 전기차 1만8319대(53.9%)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이브리드 1만2777대(37.6%), 가솔린 2734대(8.0%), 디젤 163대(0.5%) 순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전(2025년 4월·3712대, 17.3%)과 비교하면 393.5% 급증한 수치다. 수입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운영 KAIDA 부회장은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브랜드별 등락이 혼재했으나 전기차 판매 호조와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상생 지원 확대

금융·기술·인재·ESG 전방위 지원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금융 지원부터 기술 보호, 인재 확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까지 협력사 경영 전반을 지원해 배터리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일 충북 오창에너지플랜트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찬 풀 대표이사,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기술보호지원, 인력채용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협력사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대출 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금결제 정보의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확대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협력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제3의 신뢰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해 기술 보호를 지원한다.

/원관희 기자

기아 셀토스, 인도 '올해의 SUV' 현지 흥행몰이로 누적 4만대 판매

타임스 드라이브 어워즈 수상
BNCAP 별 5개로 안전성 인정
출시 후 누적 4만2554대 판매

기아의 인도 시장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현지 흥행몰이에 이어 기술적 경쟁력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아는 5일(현지 시간) 인도 타임스 그룹 산하 자동차·모빌리티 전문 매체 '타임스드라이브'가 주관한 '2026 타임스 드라이브 오토 서밋&어워즈'에서 디올 뉴 셀토스가 올해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26 타임스 드라이브 오토 서밋&어워즈는 자동차 전문 기자와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도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디자인·퍼포먼스·기술·안전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모델을 선정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디자인·기술·실용성을 균형있게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기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셀토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기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기아가 올해 1월 출시한 디올 뉴 셀



기아 디올 뉴 셀토스.

토스는 정통 SUV 스타일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를 더해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K3 플랫폼을 기반으로 승차감과 서스펜션 성능, 소음·진동(NVH) 제어 수준을 대폭 개선해 한층 부드럽고 정제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인도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BNCAP(Bharat NCAP)에서 성인 탑승자 보호 31.70점(만점 32점), 어린이 탑승자 보호 45.00점(만점 49점) 등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별 5개를 획득했다. 이는 인도에서 출시된 내연기관 SUV 가운데 최고 수준의 안전 성적이다.

디올 뉴 셀토스는 올해 1월 인도 출시 이후 월평균 1만 대 이상의 판매를 꾸준히 기록하며 지금까지 누적 4만2554대를 달성하는 등 현지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metro

HD현대일렉트릭, 북미 전력망 시장 공략

美 전력기기 전시회서 1730억 계약
765kV 변압기·리액터 공급 수주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 최대 전력기기 전시회에서 초고압 전력 설비 수주와 차세대 제품 로드맵을 함께 공개하며 현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재생에너지 연계 송전망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송전부터 배전까지 아우르는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북미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전력 산업 전시회 'IE EE PES T&D Conference & Exposition 2026'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ABB, 지멘스 에너지, 히타치 에너지 등 글로벌 주요 전력기기 기업을 포함해 약 900개에

너지 기업이 참여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행사 현장에서 미국 중부 권역 대형 유틸리티 회사와 총 173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 중남부 송전망 구축 계획인 'SPP 장기 송전 마스터 플랜'의 핵심 사업인 765kV 백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SPP 권역은 미국 내 최대 풍력 발전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초고압 송전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핵심 시장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북미 초고압 송전 설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추가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시 현장에서는 차세대 기술 방향성을 담은 '2030 로드맵'도 제시했다.

/원관희 기자 wkh@

고려아연, 매출·영업익 분기 '최대 실적'

귀금속·핵심광물 판매 호조가 견인

고려아연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악재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동시에 105분기 연속 영업흑자라는 기록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6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6조720억 원, 영업이익 746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4%, 175.2%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영업이익률도 12.3%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 같은 실적은 금·은 등 귀금속 수요 증가와 안티모니 등 핵심광물 판매 호조,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가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최윤범 회장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을 축으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이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하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고려아연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 등과 함께 총 74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추진하는 현지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미국 테네시주에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과 반도체 황산 등을 생산하는 통합 제련소를 짓는 사업으로, 한미간 경제파트너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당 50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과 원자재 공급망 악화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신사업 성과 등으로 최대 분기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초박막 필름 소재 '유니커블' 공개

세계 최대 포장 전시회 인터팩 참가

LG화학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포장 산업 전시회에서 친환경 패키징 소재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확대에 나선다.

LG화학은 7일부터 7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인터팩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인터팩은 식품·제약·화장품 등 소비재 패키징부터 포장·가공설비까지 포장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약 60개국 25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LG화학은 이번 전시에서 '소재에서 시작되는 패키징 혁신'을 주제로 초박막 포장필름 소재인 '유니커블(UNIQUABLE™)'을 소개한다. 유니커블은 단일소재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14μm(마이크로미터) 두께를 구현한 포장필

름 소재로 동일한 물성을 유지하면서 최대 12μm까지 두께를 줄인 샘플도 함께 선보인다.

유니커블은 식품, 펫푸드, 생활용품 등 소비재 포장재에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징 솔루션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포장 조건에 맞춰 가공성, 강도, 실링 안정성, 수분 차단성 등을 소재 단계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를 기반으로 해 재활용성을 높이면서도 기존 복합재질 포장 필름과 유사한 수준의 물성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단일소재는 재활용이 쉽지만 물성 확보를 위해 두께가 두꺼워지는 한계가 있다. LG화학은 소재 두께를 줄이는 다운게이징 기술을 적용해 경량화와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했다.

/원관희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엔씨·크래프톤, '피지컬 AI' 시장 진출

3D 그래픽·시뮬레이션 노하우로 로봇 AI 학습 환경 구축

게임시장 성장 둔화 돌파구 마련

엔씨 물적분할해 'NC AI' 설립
'월드모델'로 물리법칙 등 학습

크래프톤 '루도 로보틱스' 설립
방산·모빌리티 분야 협업 확대

게임 업체인 크래프톤과 엔씨가 로봇·자율주행·산업 자동화 핵심 기술로 꼽히는 '피지컬 AI'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사업 변화에 나서고 있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엔씨소프트는 최근 피지컬 AI 관련 조직과 투자, 외부 협력을 확대하며 미래 사업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지컬 AI는 AI가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과 공간 개념,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시장 확대와 맞물려 피지컬 AI가 차세대 AI 산업 핵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피지컬 AI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기존 게임 시장 성장 둔화 우려가 자리한다. 국내 게임 시장이 장기적으로 정체 국면에 접어들고, 개발비 상승과



게임 업체인 크래프톤과 엔씨가 로봇·자율주행·산업 자동화 핵심 기술로 꼽히는 '피지컬 AI' 시장에 진출했다. /따능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흥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수익원 확보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 실제, 대형 게임사들은 최근 AI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비게임 영역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게임사가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3D 그래픽과 물리 엔진, 대규모 시뮬레이션 기술이 로봇 AI 학습 환경 구축과 맞아 떨어진다. 실제 게임 속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이 현실 세계 데이터를 학습하는 피지컬 AI 기술과 연결될 수 있

다는 설명이다.

◆ NC AI, '월드모델' 앞세워 산업 AX 공략

엔씨는 AI 사업 독립과 함께 산업형 AI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AI 조직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NC AI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추진하는 '피지컬 AI 모델 학습용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개발' 과제 컨소시엄을 주도하고 있다.

NC AI가 핵심 기술로 내세우는 것은 '월드모델'이다. AI가 물리 법칙과 환경 변화를 스스로 학습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존 생성형 AI가 현실 세계의 중력과 관성, 인과관계 이해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NC AI는 월드모델을 기반으로 로봇 학습용 데이터 생성과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까지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제조와 물류, 국방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군 중심으로 AI 전환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

NC AI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산업군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반 AX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크래프톤, 로봇·자율주행으로 피지컬 AI 확장

크래프톤은 외부 기업과 협력 범위를 넓히며 피지컬 AI 사업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올해 2월 미국 본사의 로봇 자회사 '루도 로보틱스'를 설립하며 휴머노이드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김창한 대표가 직접 최고경영자를 맡고, 이강욱 최고인공지능책임자가 최고기술책임자와 한국 법인 대표를 겸임하면서 그룹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힘을 싣고 있다.

크래프톤은 방산과 모빌리티 분야 협업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피지컬 AI 공동개발

및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소카가 설립 예정인 자율주행 서비스 법인에 650억원 규모 투자 계획도 내놨다. 자율주행 과정에서 확보되는 데이터를 피지컬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최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법인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게임사들의 피지컬 AI 경쟁이 단순 기술 연구를 넘어 미래 산업 주도권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AI 산업이 텍스트 생성 중심에서 실제 행동과 판단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현실 세계 데이터를 확보한 기업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는 이미 시뮬레이션과 AI,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을 오랫동안 축적해온 산업"이라며 "기존 게임 시장 성장성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지컬 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LG CNS "산업 현장 로봇전환 핵심은 '통합적 운영 체계'"

RX 플랫폼 '피지컬웍스'

현신균 CEO "앞으로 기업 경쟁력 산업용 로봇 현장 적용·운영에 달려" 물류·제조 타깃... 생산성 등 효율화

"로봇이 생산과 운영을 수행하는 주체가 된 현재, 산업 현장에서 로봇 전환(RX)의 핵심은 개별 로봇의 성능이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현신균 LG CNS 최고경영자(CEO)는 7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마곡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CEO는 "산업 현장의 성과는 단순히 하드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산업용 로봇을 얼마나 빠르게 현장에 적용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현신균 LG CNS 사장이 7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RX 미디어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

최근 산업용 로봇은 월드액션모델(WAM)을 기반으로 인지·판단·실행을 수행하고, AI 에이전트가 다수의 로봇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단일 작업의 자동화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AI가 여러

로봇의 역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흐름에 대응해 지능형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RX 사업 전략의 초점을 맞췄다.

LG CNS는 RX 사업 확대를 위해 하

드웨어(HW)부터 펌웨어까지 로봇 생태계 협력도 강화해왔다. 로봇의 전반적인 지능을 담당하는 RFM 분야에서는 스킬드AI, 피지컬 인텔리전스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로봇 핸드 기술로 중국 인스파이어 로봇, 로봇 바디 기술에서는 텍스메이트 등과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개된 RX 플랫폼 '피지컬웍스'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로봇 학습과 현장 투입까지 전 과정을 돕는 '피지컬웍스 포지'와 종류가 다른 로봇을 로봇을 통합 관제하고 작업을 재배치하는 '피지컬웍스 바통' 등이다.

주요 타깃은 물류와 제조 산업이다. LG CNS는 그동안 CJ대한통운, 한진, 쉘리, 다이소 등과 함께 1000건 이상의 국내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LG CNS는 피지컬웍스를 통해 로봇 운영 생산성을 15% 이상 높이고, 운영 비용은 최대 18%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 현장 적용 기간도 기존 수개월에서 1~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현재 PoC가 진행되고 있는 '피지컬웍스 포지' 등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들은 약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유출 및 보안을 위해서는 시큐어 학습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대언어모델(LLM) 활용 전략은 생성형 AI 비전언어모델(VLM) 등 영역에서 파트너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한편, LG CNS는 피지컬 AI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전문 기업 스킬드에 이어 올해 미국 하드웨어 기업 엑스멘트에 투자했다. 현재 투자 검토 중인 기업은 10곳이다. /조민선 기자 msjo@

비브라늄랩스, AI 장애 대응 플랫폼으로 국내 SRE 시장 공략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

'바이브 AI'로 대응전략까지 제시

비브라늄랩스가 AI 에이전트 기반 장애 대응 플랫폼을 앞세워 국내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SRE)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브라늄랩스는 7일 AI 에이전트 기반 SRE 장애 대응 플랫폼 '바이브 AI'를 앞세워 국내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SRE는 구글이 정립한 개념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인프라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운영 체계다. 다만 기존 방식은 장애

발생 시 엔지니어가 직접 로그를 분석하고 원인을 추적해야 해 대응 속도와 운영 효율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비브라늄랩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장애 대응 플랫폼 '바이브 AI'를 개발했다. 서버 장애 발생 시 담당 엔지니어 호출부터 원인 분석, 대응 방안 제시까지 전 과정을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구조다.

특히 단순 알림 수준을 넘어 과거 유사 장애 사례와 해결 방식, 현재 비즈니스 영향까지 종합 분석해 대응 전략을 제

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회사는 중앙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기반으로 13개 이상의 AI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구조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비브라늄랩스는 5만건 이상의 실제 인스턴트 데이터를 학습해 95% 이상의 트리아지 정확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로 선정됐으며, 세일즈포스와 스플링크 등과 함께 협력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1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

(1조9421억·2114억)

전년비 11%, 66% 늘어

카카오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광고와 전자상거래, 페이, 모빌리티 등 핵심 플랫폼 사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실적을 견인했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조9421억원, 영업이익은 66% 늘어난 2114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수치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16% 증가한 1조

1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특비즈 매출은 6086억원으로 9% 성장했다. 특히 광고 매출은 금융 광고주 수요 확대와 메시지 상품 다각화 영향으로 16% 증가한 3384억원을 기록했다. 비즈니즈 메시지 매출은 27% 늘었고 디스플레이 광고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커머스 성장도 이어졌다. 선물하기와 특딜 등을 포함한 특비즈 커머스 거래액은 2조9000억원으로 10% 증가했다. /최빛나 기자

순환매만 반복되는 코스닥... “시장 이끌 주도주가 없다”

바이오 업종 투자심리 악화된 영향 기업 이슈로 업종 전반 신뢰 하락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

“요즘 코스닥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이용현씨(56)는 “코스닥은 도대체 ‘장투’(장기투자)를 할 수가 없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털어놨다. 코스피가 7천피 시대를 열었지만 코스닥은 ‘천스닥’(코스닥 1000) 초반에 머물고 있다. 26년 전 짝은 최고점(2834.40)은 더더욱 갈 길이 멀다.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시가총액 1위 자리가 여러 차례나 바뀔 정도로 업종 간 순환매가 빨라진 가운데, 바이오·이차전지·로봇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다. 시총 비중이 높은 바이오 기업들은 기업들의 불성실공시 및 임상결과 등에 실망해 발을 빼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는 13.50% 상승한 반면, 코스닥



ChatGPT로 생성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한 코스피와 반대로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로 인해 상대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코스닥지수’ 관련 이미지.

지수는 0.57% 상승에 그쳤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 위치한 바이오 기업들의 부진 영향이 크다. 지난달 들어 이날까지 KRX 반도체 지수는 64.41% 상승했으나, KRX 헬스케어 지수는 4.60%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KRX 테마지수 중 떨어진 지수는 KRX 헬스케어 지수와 KRX 300 헬스케어(-5.03%), KRX K콘텐츠(-1.77%)뿐이다.

정희찬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4월 동안 코스닥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바이오 업종의 투심 악화 영향으로 코스피 대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며 “지난달 중 불성실공시 및 임상결과 실망 등 개별 종목 이벤트가 업종 전반 투심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스닥 시총 ‘톱10’에 오른 바

이오 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락세다. 특히 삼전당제약은 지난 3월 말 장중 120만원대까지 치솟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기술력과 ‘주가 부풀리기’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는 4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개미들은 코스닥을 외면하고 있다. 코스콤ETF CHECK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1개월 동안 ‘KODEX 코스닥150’을 6972억원,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를 6124억원씩 순매도했다. 각각 해당 기간 순매도 2·3위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기대를 건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통해 한계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고, 코스닥 시장을 세그먼트로 나눠 승강제를 도입하는 등을 담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민간이 뒷받침하는 활성화 정책은 시장의 질적 변화를 자극할 것”이라며 “정책 초기에는 부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성장동 후 코스피에 뒤지

지 않는 시장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사들도 코스닥지수 상승 기대감을 반영해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코스닥 유망 종목에 투자하는 ‘삼성액티브 코스닥FOCUS 펀드’를 출시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앞서 ‘KoAct 코스닥액티브’도 출시하면서 코스닥 액티브 ETF 시장에 참여했다. 이외에도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 한화자산운용의 ‘PLUS 코스닥150액티브’ 등이 존재하며 현대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도 코스닥 액티브 ETF 상품 출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은 “작년부터 본격화된 대형주 상승 이후에는 중소형주로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등도 코스닥 중소형주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godhe@metroseoul.co.kr

“아직 저평가”... 삼전·하닉 목표가 줄상향

증권업계, 실적전망치 상향 조정 메모리 반도체 성장 가능성 반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다.

7일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50만원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경기 우려를 반영해 하향했던 목표 주가수익비율(P/E)을 이전 수준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적전망치도 2026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338조원, SK하이닉스 262조원으로 기존 대비 각각 3%와 4%씩 상향하고, 2027년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494조원, SK하이닉스 376조원으로 각각 18%, 15% 상향조정했다고 전했다.

한 연구원은 “최근 메모리 주가 랠리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관련주 내 메모리에 대한 현저한 저평가 인식이며, 이는 메모리 ‘이익창출력’의 구조적 제고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업황 강세를 수급에 따른 일

시적 현상으로 해석하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메모리 재평가는 여전히 초입에 불과하다”면서 “주가 랠리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P/E는 각각 6.0배와 5.2배 수준이다. 한국 메모리에 대한 매수주체 확대를 감안하면 저평가 매력 부각은 아직 시작단계”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20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5% 올려잡았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은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279조원과 398조원을 유지한다. 다만, 수급주체 변화가 감지되기에 글로벌 메모리 업종 주가순자산배수(P/B) 평균 4.5배(기존 3.4배)를 즉각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가를 12개월 선행 P/E 배수로 환산하면 7.6배에 불과하다. 이제 막 정상화되는 모습”이라면서 “최근 서버 중앙처리장치(CPU)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고 동사의 강점

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동향도 호의적”이라고 평가했다.

교보증권도 삼성전자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의 강도와 지속성이 확인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과 함께 서버용 DDR5, 모바일 LPDDR5X 수요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실적 전망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실적 모멘텀은 크고 주주환원책은 명확하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3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렸다. 채민숙 연구원은 “범용 D램과 낸드가 공급 제약과 LTA(장기공급계약)를 바탕으로 높은 ASP(평균판매단가)를 유지하는 가운데 2026년 가격 상승이 제한됐던 HBM의 ASP도 상승할 경우 2027년 메모리 사업부 이익 규모는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전자·하이닉스 2배 추종 ETF 나온다

미래에셋증권 발간 보고서 적극적 유입 기준 5.3조 추정

5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좇는 상장지수펀드(ETF)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사례 적용 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유입은 소극적 유입 기준 1조7000억원, 적극적 유입 기준 5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주, 기존 반도체 ETF, 홍콩 ETP 등 이전 수요가 총액의 85~88%를 차지하며, 신규 수요는 12~15%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 개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직접 매매(IBKR) 개시는 변수 요인이

며, 단일 종목 교육 이슈가 별도로 필요한 점도 일정 부분 허들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보통주 매도 요인(소극적 -1조1000억원, 적극적 -3조4000억원)과 신규 ETF의 현물 매수(소극적 +1조7000억원, 적극적 +5조3000억원)가 맞물리면서 순영향은 우호적(소극적 +6000억원, 적극적 +1조8000억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외국인 등 기타 주체의 활동 및 시가총액 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존 레버리지 ETF에서의 적극적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신규 자금 유입이 대부분 반영되며 프로그램 매수 및 쏠림 유발 가능성이 크다”고 윤 연구원은 짚었다.

/신하은 기자

미래에셋증권 ISA 고객자산 15조 돌파

순입금액 15개월 연속 1위

미래에셋증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 자산이 1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1월 말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5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중개형 ISA 순입금액 기준으로 15개월 연속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투자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ISA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예상 세금·수익을 미리 계산해주는 ‘절세 플래너’ 서비스 등이 자금 유입을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ISA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이용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성장형부터 안정형까지 투자 성향별 자산배분 전략을 제공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리밸런싱도 지원한다.

올해 1분기 기준 미래에셋증권 ISA 가입자 가운데 만기 해지로 절세 혜택



을 받은 고객은 5100여명으로 집계됐다. 절세 규모는 총 24억원으로, 계좌당 평균 47만원 수준이다.

/허정윤 기자

코스피200 지수 기초자산

삼성자산운용은 KODEX 200타겟 위클리커버드 ETF의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월 순자산 4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순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 증가했다. 현재는 순자산 5조2421억원을 기록 중이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 ETF는 2024년 12월 상장 이후 약 1년 6개월만에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 ETF는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주 단위 콜옵션 매도를 통해 연간 약



15% 수준의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한다. 여기에 코스피200 종목 투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약 2%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더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평균 약 1.42%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커지는 K-푸드 인기... 캐나다 박람회서 2960만달러 계약

aT, 미국 이어 캐나다 진출 지원 '건강함' 내세워 북미 트렌드 저격 국내 12개 수출업체 참가·상담

한국산 식품이 북미대륙 소비자들 기호에 다가서고 있다. 최근 현지 식품박람회에 모인 인파가 K-푸드의 확산·인기를 입증하는 모습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해 3분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4분기 휴스턴 행사에 이어 올해 2분기엔 캐나다로 향했다.

aT는 지난달 29일~이달 1일 기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6 몬트리올 국제식품박람회'(2026 SIAL Canada in Montreal)에 참가해, K-푸드 업체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했다.

행사장 내 한국관에서의 식품 전시에는 국내 12개 수출업체가 참여했다. 발효식품인 김치를 비롯해 비건만두와 냉동 가정간편식 제품, 신선포도, 스낵류, 김 등 다양한 농식품을 선보이며 바이어들에게 한국산 식품의 경쟁력을 알렸다.

한국관 내 K-푸드 홍보관에서는 우리 식재료가 가미된 파인다이닝 요리를 시연해, 현장 방문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모았다. 특히 김치와 누룽지로 아



미주 K-푸드 페어 B2B 행사장의 모습.



'2026 몬트리올 국제식품박람회' 행사장 내 한국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K-푸드를 시식하고 있다. /aT

삭한 식감을 살린 샐러드가 인기였다. 방문객들은 또 고추장을 발라 구운 삼겹살, 크림소스에 된장을 가미한 파스타, 홍삼튀김 유아음료수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장을 찾은 식재료유통회사 영입이사 스콧 머피 씨는 "K-푸드는 건강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많아 최근 북미 바이어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또 "특히 다양한 발효식품은 현지 건강식품 소비 흐름과 잘 맞는다"며 소감을 전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서는 총 3593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이 진행됐

다. 또 김치, 냉동마늘, 냉동잡채, 냉동 비빔밥, 비건만두 등 총 7건의 현장 업무협약(MOU) 체결 등 296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성사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5개국, 800개 업체가 참가했다. 2만3000여명의 바이어 및 식품 관계자들이 방문하는 등 이 박람회는 북미시장 공략을 위한 주요 관문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제2 도시 몬트리올에는 아시아와 중동, 유럽, 남미 등 다문화 식품 바이어들의 방문이 잦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현재 캐나다는 다문화 소비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시장"이라며 "앞으로 건강함, 프리미엄, 발효식품의 강점을 앞세워 북미시장 수출 확대의 주요 거점으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aT는 앞서 작년 하반기엔 미국 서·남부 소비자들을 찾았다. 9월 로스앤젤레스와 10월 휴스턴에서 '2025 미주 K-푸드 페어'를 잇따라 개최했다.

LA에서 B2B 수출상담회, 휴스턴에서는 B2C 소비자체험행사로 나눠 추진했다. K-푸드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LA 웨라톤세리토스호텔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43개 식품기업과 미주 바이어 77개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총 415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전통주와 가정간편식, 장류·소스류가 바이어들 사이 호평을 받았다. 현지에서 980만 달러 규모의 MOU 11건이 체결됐다. 부대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현지 인플루언서 대상 마켓테스트 ▲FDA(미 식품의약국) 규정 유의사항과 관세 대응 세미나 ▲북미 진출을 위한 지적재산권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10월의 소비자체험행사는 '휴스턴 K-페스티벌'과 연계해 K-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축제형 행사로 열렸다.

휴스턴에서는 라면, 스낵류, 음료 등의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K-푸드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한국산 배 슬러시는 벌써 30도를 오르내리는 현지 무더위 속, 방문객 각증 해소에 탁월했다. 또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장면을 모티브로 한 케데헌 K-푸드 한상차림, 한국 쌀과자를 활용한 크로거 셰프 주니어 쿠킹클래스, K-푸드 퀴즈쇼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제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공정위, 플라스틱 파レット 담합 첫 제재

골드라인·엔피씨·현대리바트 등 165건 입찰서 낙찰자·가격 사전 모의

물류 현장의 필수 자재인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을 벌여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18개 파렛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 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골드라인, 엔피씨, 현대리바트, 한국프라스틱, 이건설 등 국내 주요 파렛트 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파렛트(Pallet)는 화물을 하나로 묶어 지게차로 운송할 때 사용하는 깔판 모양의 자재로, 석유화학 및 사료 등 물

류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8개 사는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입찰에 참여하며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저가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대면 모임,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를 지원했고, 낙찰자는 그 대가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들러리 업체들과 나누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엔디케이, 엔피씨, 한국프라스틱 등 5개 사는 농협경제지주와의 거래에서도 담합(2020년 6월~2024년 5월)을 벌였다. 이들은 특정 업체가 납품을 독점할 수 있도록 돕는 대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지역 단위농협이 개별적으로

견적을 요청할 경우, 농협 납품가보다 일부러 높은 가격을 제시해 농협 중앙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

이번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약 3692억원에 달한다. 담합 대상이 된 수요처에는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들을 포함해 총 24개 사업자가 포함돼 있어 산업계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 간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장기간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당 이득을 극대화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추후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켜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지난달 하순 활동을 시작한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

/농협중앙회

농협, 청년들과 손잡고 디지털농업 알린다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 출범

농협은 우리 농업의 지향점인 디지털 농업 관련해, 젊은이들의 의견 수렴 강화에 나선다. 20·30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견해를 반영하고자, 서포터즈를 발족했다.

이른바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다. 이들은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디지털농업 서비스 홍보를 위해 선발된 청년들이다. 'NH오늘농사'는 약 8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디지털영농 플랫폼

품이다. 7일 농협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9월 중순까지 ▲'NH오늘농사' 디지털 홍보 ▲농촌 일손돕기 및 쌀 소비촉진 부스 운영 등 현장활동 ▲서비스 고도화 제안 등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젊은층의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NH오늘농사서비스 홍보와 체험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연안해운업계 추경 긴급 지원

유가 급등에 226억 투입

정부가 연안해운업계에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석유류 값 폭등으로 국내 연안해운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불어난 데 따른 긴급 지원책이다.

해양수산부는 7일 연안해운선사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및 운항결손금 등을 비롯한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혔다.

연안에서 운항 중인 총 2057척의 여

객선과 화물선은,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섬 지역 물류운송의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들 선박은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정상적인 운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용 경유의 경우, 3월 하순 정부 발 최고가격제(상한제)가 실시됐지만 지난 2월에 비해서는 32% 뛰었다. 면세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68%나 올랐다.

해수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격을 위해 추경 편성으로 확보한 226억원을 조속히 집행해, 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 중구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모습 /뉴시스

정상 운항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42개 항로가 대상이다. 운항결손금 추가 지원에 산 29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42곳은 29개 국가보조항로와 13개 적자항로다. /세종=김연세 기자

KTL, 국내 최고 수준 보안인증 획득

'ISMS-P', 101개 항목 모두 통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획득했다.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량 향상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KTL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 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MS-P는 기관이 정보보호 및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적절하게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총 3개 영역 101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번 인증은 KTL의 대표 누리집과 시험인증서비스 부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KTL 측은 핵심 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2028 달라지는 대입수시... 학생부교과 줄고 논술 늘었다

학생부교과전형 모집 333명 줄어 논술, 수도권 비중 12.7% '최고치' 변별력 위해 대학별 평가요소 강화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도권 대학들이 내신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을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내신 5등급제 도입을 앞두고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진학사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은 2만 7886명으로 전년 대비 333명 감소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4만 786명으로 1724명 증가했고, 논술전형도 1만 1443명으로 413명 늘었다.

이는 내신 체제 개편에 따라 학생 간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대학들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삼육대학교가 지난해 11월 17일 교내 일원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삼육대

한때 정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축소 흐름을 보였던 논술전형의 확대 흐름도 주목된다. 2023학년도 9133명이던 수도권 대학 논술 선발 인원은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8학년도에는 1만 1443명까지 늘어났다.

수도권 수시모집 중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학년도 10.7%에서 2028학년도 12.7%까지 높아졌다. ▲한양대(+57명) ▲연세대(+49명) ▲아주대(+47명) 등이 모집 규모를 확대했으며, 국민대는 2023학년도 당시 운영하

지 않았던 논술전형을 다시 도입해 확대 흐름에 합류했다.

서울 주요대학 입학처 한 관계자는 "내신 5등급제로 개편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분포가 더 밀집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 입장에서는 기존보다 변별

요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며 "학생부교과전형만으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어 학종이나 논술 등 대학별 평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발 방식을 조정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수험생의 전형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줄고 학생부종합·논술전형이 확대되면서, 내신 성적만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기보다 학교생활기록부 경쟁력과 대학별 고사 준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2028학년도에는 통합형 수능과 내신 5등급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첫해인 만큼, 수험생들은 전형별 평가 요소를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번 변화는 단순한 모집인원 조정이 아니라 대학별 평가 요소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검정고시 합격률 91%... 최고령 83세

서울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4368명 응시, 3993명 졸업학력 취득

"평생 학교를 못 다녀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라도 졸업장을 남길 수 있어 기쁩니다."(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고시 최고령 합격자 김순자 씨(83세·1942년생))

서울에서 시행된 올해 첫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재소자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성과를 내며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 '2026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4368명이 응시해 3993명이 합격했으며, 전체 합격률은 91.4%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졸 합격률



ChatGPT로 생성한 검정고시 합격자 이미지.

이 전년 대비 3.4%포인트(P) 감소했지만, 중졸은 6.9%P, 고졸은 6.8%P가 각각 증가하면서 전체 합격률은 5.8%P 상승했다.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각·지체 장애를 가진 42명의 응시자에게 대독·대필과 시험 진행 안내 등 편의 제공 서비스를

지원해 이 중 33명이 합격, 78.6%의 합격률을 보였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김순자(83), 중졸 유호준(82), 고졸 김순자(81)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유모(10대), 중졸 정지우(14), 고졸 안수현(12)으로 나타났다.

재소자를 위한 별도 고사장 운영도 눈길을 끌었다. 남부교도소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응시한 33명(중졸 3명, 고졸 30명)은 전원 합격해 100%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증서와 성적증서, 과목합격증서는 발표 이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급 학교 행정실과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합격증서는 오는 8일과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교육청 구청사 본관에서 교부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내일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 대상 한 달에 약 15% 비용 절감 예상

서울시는 9일부터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의 요금을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 충전 시 최대 약 15%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봄·가을철 낮 시간대 전력 수요를 분산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산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요금 할인은 서울시를 비롯한 기후부, 한국전력공사 등이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할인 시간은 봄철(3~5월)과 가을철(9~10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특히 서울시가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월 4회 해당 시간대에 충

전할 경우, 한 달에 약 15% 정도 충전비가 절감된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체 운영 충전기의 경우에도 같은 시간대 충전 시 킬로와트시(kWh)당 약 40.1원~48.6원이 할인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각 단지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관리사무소의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에버온 등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이번 요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더 많은 민간 보조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들이 더 디저너 저렴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정책에 맞춰 서울시 운영 충전기도 할인 적용에 동참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비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평화누리길 12개 코스 걸어보세요"

경기관광공, 스탬프북 종주인증제 시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평화누리길 도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텔링 스탬프북 종주인증제를 6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모바일 앱 중심 인증 방식에 오프라인 스탬프북을 결합해 참여 방식의 다양성을 넓히고 체험 요소를 강화한다.

이번 종주인증제는 디지털 기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직접 도장을 찍으며 완주 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아날로그 감성을 더했다.

스탬프북은 단순한 인증 수단을 넘어

DMZ 접경지역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텔링형으로 제작됐다. 각 코스에 얽힌 설화와 지역 특색이 함께 수록돼 도보 여행의 몰입도를 높인다.

김포 1코스 손돌묘와 김포 2코스 문수산성, 연천 10코스 학곡리 고인돌 등 주요 명소에는 각각의 스탬프가 배치된다. 이용자는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도장을 수집하고 평화누리길의 다양한 이야기를 체험하게 된다.

스탬프북은 총 4800부 한정으로 제작됐다. 판매는 임진각 파주 8코스과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연천 11코스 내 굿즈 판매기에서 진행되며 가격은 권당 500원이다.



평화누리길 종주 모습. /경기관광공사

12개 코스 15개 스탬프를 모두 완주한 이용자는 연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에서 종주 인증서와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어울림센터 내 명예의 전당 등재를 통한 기록도 제공된다. 다만 기존 모바일 앱과 스탬프북을 통한 중복 인증 시 기념품 이중 수령은 제한된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성남시 "세계 전통 혼례 모습 한자리에"

10일 시청 광장서 '어울림 축제'

성남시는 오는 10일 시청 광장에서 '세계 전통 혼례 체험'을 주제로 '제15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는 이날 행사에 내·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일반 시민 등 약 5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념식은 오후 2시 시청 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28개국 국

기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개막 선언,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등 5개국 전통 혼례복을 입은 신랑·신부가 무대에 올라 각국의 결혼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풍물패 공연을 비롯해 아름다운 합창단, 미8군 브라밴드, 아프리카댄스컴퍼니 따그(TAGG) 등이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시청 광장에는 총 38개의 전시·체험·음식 부스도 운영된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주류업계, 여름 성수기 키워드... '라이트·무알코올·리뉴얼'

고물가에 '경기불황' 판매 사할 롯데칠성 크러시 브랜드 새단장 오비맥주 카스 제품 라인업 확대 하이트진로 올뉴진로 전면 개편

여름 성수기를 앞둔 음료 및 주류업계의 표정이 복잡미묘하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대목을 맞았지만, 고물가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벼움(Light)' '건강(Healthy)' '새로움(Renewal)'을 키워드로 내세워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주류업계의 위기감은 수치로 증명된다. 국내 주류 출고량은 2022년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24년에는 315만kl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기업의 소주·맥주 매출 역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카스 프레스 아이스' /오비맥주

이러한 실적 악화는 고물가에 따른 외식 소비 위축과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음주 문화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식당 등 유흥 채널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들이 술자리를 줄이거나 저렴한



TERRAXSON7 에디션 /하이트진로

흡술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전체 맥주 소비는 줄었지만, 칼로리와 당을 낮춘 '라이트 맥주'와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라이트 맥주 매출은 32%, 무알코올 제

품은 21%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에 롯데칠성음료는 '크러시' 브랜드를 리뉴얼하며 라이트 맥주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쿠리 맥아를 더해 고소한 맛을 살리고 비열처리 공법으로 청량감을 강조했다. 오비맥주는 시장 점유율 3위인 카스 '라이트'를 필두로, 최근 알코올·당류·칼로리·글루텐을 모두 뺀 '4무(無)' 제품까지 선보이며 무알코올 라인업을 촘촘히 다지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테라 라이트'와 '테라 제로'를 통해 풍미를 강조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 모델 기용과 체험형 캠페인으로 젊은 층 공략에 적극적이다. 소주의 경우 '진로' 브랜드를 '올뉴진로'로 전면 개편했다. 한자로 고를 한글로 바꾸고 3D 두꺼비 캐릭터를 적용해 젊은 감각을 입혔다. 도수 역시 과거보다 낮아진 저도화 추세가 뚜렷하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종합주류도매

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식당에서도 제로 맥주를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점이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술과 음료가 단순히 '취하거나 갈증을 해소하는 수단'을 넘어 '자기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분석한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 등 대외 악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판관비 절감 등 내실 경영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변화된 입맛을 맞추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여름은 라이트와 무알코올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며 "가벼운 열량과 건강한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제품에 뒤처지지 않는 '맛'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현하느냐가 이번 성수기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내다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제일제당, 한국 전통주 세계화 시동

美 PGA 대회서 문배술 카테일 선보여 가무치소주 더해 제품 라인업 확대 프리미엄 증류주 '자리' 출시 준비

CJ제일제당이 미국 PGA 투어 정국 대회인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전초기지 삼아 한국 전통주의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식품 브랜드 '비비고'의 성공 경험을 주류 산업으로 확장해 K-푸드에 이은 'K-리커(Liquor)'의 저변을 넓혀겠다는 전략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대회 현장에서 문배술과 가무치 소주를 베이스로 한 카테일을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문배술을 활용한 카테일이 현지 갤러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는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성 시음을 넘어, 곡물 증류주 특유의 풍미를 앞세워 서구권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한 사전 마케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의 전통주 세계화 전략은 브랜드화와 숙성 시설 구축이라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프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PGA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의 행사장 House of CJ에서 바텐더가 한국 전통주인 문배술을 활용해 K-카테일을 만들고 있는 모습. /CJ제일제당

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jari(자리)'의 상표권을 출원했으며, 중소 양조장인 문배주양조원(문배주), 다농바이오(가무치소주)와 협력하여 충남 논산에 별도의 숙성 시설을 마련했다. 한식에 익숙한 미국 소비자를 1차 타깃으로 삼았으며, 하반기 공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글로벌 NEXT K-푸드 프로젝트'에 선정된만큼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양조장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현지 레스토랑과 연계한 'K-레스토랑 워크' 등을 통해 일본의 사케나 중국의 백주처럼 한국 전통주를 아시아 대표 주류 반열에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CJ제일제당의 전통주 세계화 행보는 단일 기업의 수익 창출을 넘어 국내 주류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주요 기대 효과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그간 한국 주류 수출은 저가형 희석식 소주나 맥주에 편중되어 있었다.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 'jari'의 등장은 수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를 통해 다져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마케팅 역량을 전통주에 이식할 것"이라며 "한국식 증류주의 경쟁력을 제고해 글로벌 주류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삼립, 포켓몬 30주년 기념 '포켓몬빵'

오리지널 일러스트 따부썰 10종 동봉 리자몽·이상해꽃 등 신제품 5종 선보여

삼립이 포켓몬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따부썰을 동봉한 '포켓몬빵'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시작인 '포켓몬스터 레드·그린(국내 미발매)'의 출시 30주년을 기념해 기획됐다. 포켓몬의 대표 아트 디렉터 '스기모리 켄'의 오리지널 일러스트가 적용된 따부썰 10종이 새롭게 포함돼 팬들의 수집 재미를 극대화했다.

볼닭소스로 매콤한 맛을 살린 '리자몽의 불대문자 핵불닭빵', 이상해꽃의 덩굴 무늬를 표현한 케이크 시트에 달콤 짭짤한 솔티 카라멜 크림을 더한 '이상해꽃의 덩굴채찍 솔티카라멜빵', 빵 속에 달콤한 슈크림을 가득 채운 '야도란의 슈크림썩빵', 고소하고 짭짤한 파마산 치즈를 넣은 '피카츄의 파마산치즈 통과운드', 바닐라&초코카스테라에 크림과 딸기잼을 더한 '우리는 모두 친구 딸기&초코컵케익' 등 5종이다. 전국 마트, 편



의점, 슈퍼, 온라인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따부썰을 보관할 수 있는 '따부썰북' 2종(이상해꽃·리자몽)도 선보인다. 따부썰북은 카카오, 네이버, KREAM 등을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삼립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삼립 브랜드 담당자는 "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오리지널 감성의 따부썰과 특별한 레시피의 제품을 선보인다. 앞으로도 포켓몬을 활용해 고객에게 즐거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월드푸드, 꼬깔콘 패키지 5년 만에 새단장

삼각별 BI 기울여 역동성 강화

롯데월드푸드가 대표 스낵 브랜드 '꼬깔콘' (사진)의 패키지 디자인을 2021년 이후 5년만에 리뉴얼했다. 이번 디자인 리뉴얼은 그간 꼬깔콘이 쌓아온 브랜드 자산을 유지하면서 보다 재미있는 요소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글로벌 소비자 공략을 고려해 영문 브랜드명도 함께 표기했다.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은 젊은 세대가 재미있게 느낄만한 요소를 적용했다. 꼬

깔콘 특유의 삼각별 모양 BI(Brand Identity, 브랜드 정체성)를 사선으로 살짝 기울이고, 배경 색상도 젊은 타깃이 선호하는 감각적인 컬러를 적용해 역동성을 부여했다.

꼬깔콘 과자 표면의 울퉁불퉁한 모양도 삼각별 BI에 녹여내어 특징을 잘 드러내도록 했다. 특히 '매콤달콤한맛'은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바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패턴 그래픽을 추가해 1020세대 소비자의 눈길을 끈다.



브랜드 이름 부분에는 글로벌 소비자를 겨냥해 영문 'KOKALKON'을 한글 아래에 함께 표기했다. 꼬깔콘만의 바삭한 식감과 경쾌한 소리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우측 하단에는 꼬깔콘의 슬로건 '소리까지 맛있다'를 삽입했다.

새로운 꼬깔콘의 디자인은 소비자 조사에서 '잘파(z+alpha)' 세대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멤버십 혜택 강화 '썩7클럽 워크'

오는 13일까지 회원 전용 할인 행사

SSG닷컴이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썩7클럽 워크'를 오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보기 멤버십 '썩7클럽' 회원 전용 혜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고물가 상황 속 실속형 소비 수요에 맞춰 할인과 적립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 동안 회원 대상 '썩7복권 이벤트'를 통해 매일 최대 7000원의 장보기 지원금을 제공한다. 회원은 ID당 하루 1회 참여할 수 있으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 경품도 함께 증정한다.

신선식품과 생활용품 등 약 100여 종의 회원 전용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 CJ 스캠 클래식(200g) 3개입은 9000원대에 판매하며, 세탁제와 바디워시는 1+1 혜택을 적용한다.

수박은 정상이 대비 약 30% 할인하고, 고시하카리 쌀 10kg은 3만원대에 판매한다. 추가로 1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신규 회원 대상 행사도 마련했다. 신규 가입 고객은 CJ 핫한 4개입 세트, 더미식 교자, 슈가버블 주방세제 등 일부 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SK바이오팜, 영업익 250% ↑... ‘빅 바이오텍’ 선순환 궤도

1분기 매출 2279억, 영업익 898억
세노바메이트로 이익 창출하고
현금흐름 R&D에 재투자 구조
TPD 중심 R&D 전략 공개



엑스코프리.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의 처방 증가로 1분기 수익성이 대폭 증가했다. 회사측은 세노바메이트를 통해 창출되는 이익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며, ‘빅 바이오텍’으로 가는 선순환 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SK바이오팜은 실적 공개와 함께 표적단백질분해(TPD)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파이프라인 및 독자 플랫폼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R&D) 전략을 공개했다.

◆ 영업이익 전년 대비 250% 성장

SK바이오팜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2279억원, 영업이익 898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94%, 전년 동기 대비 약 250%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027억원을 기록했다.

회사측은 R&D 및 마케팅 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약 900억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세노바메이트를 통해 창출되는 지속 가능한 이익과 현금 흐름을 R&D

에 재투자하는 구조가 본격화되며, 국내 유일의 ‘빅 바이오텍’으로 가는 선순환 궤도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1977억원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처방 지표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3월 기준 월간 총 처방 수(TRx) 약 4만7000건 가까이 기록했으며, 신규 환자 처방 수(NBRx)는 이번 1분기에 분기 평균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노바메이트는 적응증 확대와 제형 다변화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액 제형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했으며, 전신강직-간대발작(PGTG) 및 소아 환자를 포함한 적응증 확대도 연내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XCOPRI의 미국 판매량을 기반으

로 후속 제품 도입도 추진 중이다.

◆ TPD 중심 독자 플랫폼 기술 공개

SK바이오팜은 이날 R&D 세션을 통해 표적단백질분해(TPD)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파이프라인 및 독자 플랫폼 기술 중심의 R&D 전략을 공개했다.

파이프라인 측면에서는 p300 타깃 분해제 ‘SKT-18416’의 전임상 결과가 상세히 다뤄졌다. p300은 전사 복합체의 핵심 단백질로 암세포 성장에 필수적이거나, 상동성이 매우 높은 CBP 단백질과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인해 기존 저해제들은 혈액 독성 등의 부작용 한계가 존재했다.

SKT-18416는 전임상 결과 CBP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p300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기전을 통해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실제 약효 평가에서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및 CBP 변이 암 모델을 대상으로 강력한 종양 성장 억제 효과를 입증했으며, 종양 특이적 의존성이

높은 암종에서도 항종양 효과를 보였다. 해당 과제는 현재 임상시험계획(IND)을 목표로 연구 중이며, 2027년 상반기 IND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 플랫폼 ‘MOPED TM’도 소개됐다. MOPED TM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유도해 특정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물질을 발굴하는 기술로, 기존 접근으로는 공략이 어려웠던 단백질 타깃까지 확장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SK바이오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개의 FDA 승인 혁신신약을 발굴한 CNS 분야 저분자화합물 신약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신약에서 창출한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수익을 TPD·RPT 등 차세대 파이프라인과 플랫폼에 재투자 해왔으며, 앞으로 가시화되는 성과들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metro

“달려 벌어오는 ‘K-디바이스’”... 해외 비중 90% 성과

에이피알 1분기 잠정 실적

매출 5934억, 영업익 1523억
전년비 123%, 173.7% 급증
美 매출 250.8%... 실적 견인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에이지알’의 신제품 부스터 글로우. /에이피알

‘K뷰티’ 기업 에이피알이 전 세계 안방 화장대에 ‘K디바이스’를 울리며 역대급 달려 벌이에 성공했다. 화장품 수출을 넘어 고부가가치 품목을 내놓으며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창사 이래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글로벌 짝꿍을 터뜨렸다.

에이피알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 5934억원, 영업이익 152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0%, 173.7%씩 급증한 수치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창사 이래 단일 분기 최대

은 올해 1분기 해외에서 전년 동기 대비 179.9% 늘어난 5281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8.1%p 증가한 89.0%다.

미국 매출이 250.8%의 큰 폭으로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미국에서만 2485억원의 매출을 거뒀고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9%에 달한다.

이러한 상승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채널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에이피알은 오프라인 채널 확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에이피알 측은 현재 미국 매출에서 현지 대표 온라인 채널인 아마존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이 60% 수준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얼타뷰티, 대형 마트 등 복수 오프라인 채널 입점을 순차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이피알은 오프라인 채널 확대 전략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도 주효하다. 일본 매출은 5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8% 증가했으며, 현지 드럭스토어·바라이어티슈 등 오프라인 유통망 확장과 함께 제품군 다변화 효과가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쿠팡, 라쿠텐 등 주요 온라인 채널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온·오프라인 균형 성장을 실현했다.

같은 기간, 기타 지역 매출 역시 601억 원에서 1900억원으로 216.1% 늘어나며 글로벌 전반에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에이피알은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17개 국가 내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메디큐브를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뷰티 디바이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성장한 1327억원의 매출을 울리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에 힘을 보탤다.

에이피알은 사업 핵심 축인 뷰티 디바이스 부문에서 독주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외 일본에서 흥행 중인 차세대 기기 ‘부스터 프로 X2’가 오는 6월부터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 주력 제품으로 전격 투입된다. 또 초음파 디바이스를 비롯해 올해 안에 1~2종의 신제품 추가 출시가 예고되어 있다.

외형 확장과 함께 수익성 측면에서도 ‘청신호’를 켜다. 올해 1분기 현지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약 200억원 규모의 항공 운송비를 투입하며 물류비 부담을 감수했으나, 향후 공급망 안정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에 나서면서 이익 구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2분기부터 200억원 초중반 규모의 미국 관세 환급금까지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 美 벤처기업 투자 단행

‘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
ATLAS·SUMMIT 플랫폼으로
항체 치료제 설계 역량 갖춰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가 미국 바이오 벤처 기업인 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Cartography Biosciences)에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는 독자적인 단일 세포 유전자 데이터와 고도화된 바이오인포매틱스(BI)를 결합하여 항원을 발굴하는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ATLAS’ 및 ‘SUMMIT’ 플랫폼을 통해 종양 특이적 항원 및 항원조합을 식별하며, 이를 바탕으로 표적 정확도를 높인 항체 치료제 설계 역량을 갖추고 있다. 주력 파이프라인으로는 대장암 대상의 T세포 인계이저(T cell engager) ‘CBI-1214’가 있으며, 해당

후보물질은 2026년 초 임상 1상에 진입하여 현재 환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은 이번 투자를 통해 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의 유전자 데이터 기반 항원 발굴 및 신약 개발 역량과 연계한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차세대 항암제 분야의 유망 기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형남 삼성바이오로직스 연구소장(부사장)은 “카토그래피는 암 종별 단일 세포 유전자데이터와 바이오인포매틱스를 결합해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생명공학 혁신 기업”이라며 “전 세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캐빈과커카토그래피 바이오사이언스 CEO는 “삼성은 종양 생물학을 정밀하게 분석해 차별화된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자

사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신기술과 최첨단 생물학적 공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 출자하고 삼성벤처투자자운용하는 벤처 투자 펀드로, 바이오 분야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을 발굴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ADC(항체-약물 접합체) 링커 기술을 보유한 스위스 기업 ‘아리리스 바이오’와 ADC 기반 뇌종양 및 항암제를 개발하는 삼성의료원 기술 기반 기업인 ‘에임드바이오’는 물론 ‘브릭바이오(미국)’와 ‘프론티라인(중국)’ 등에 투자하며 항암제 개발에 주력해 왔다.

/이세경 기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日서 K-럭셔리 선택

오는 12일까지 옛코스메 도쿄서 행사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일본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럭셔리 뷰티 브랜드인 ‘설화수’를 전면 배치해 일본을 아시아 핵심 요충지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12일까지 일본 최대 뷰티 매장 옛코스메 도쿄에서 설화수 브랜드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일본은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기준과 브랜드 인목이 높은 시장이다. 현지 시장 특성을 반영해 이번 행사 역시 설화수가 구축해 온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브랜드 대표 스킨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동양적 미학과 현대 과학을 결합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설화수의 일본 진출에는 브랜



옛코스메 도쿄에 꾸며진 ‘설화수’ 행사장 외부 전경. /아모레퍼시픽

드 경쟁력이 뒷받침됐다. 최근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발간한 보고서 ‘스킨&골드 아시아’의 가격 요소를 제외한 브랜드 선호도 조사 항목에서 설화수는 스킨케어 전 카테고리 기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아모레퍼시픽은 앞서 올해 1분기에도 일본에서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 /이청하 기자

“ 아, 오늘이 내 인생의 클라이맥스구나. ”

뮤직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2

Always

2026.4.1 - OPEN RUN 후암씨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2)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박예슬 | 연출 승운 | 작곡·음악감독 서진영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박민서

주최·주관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출판사 waterfallstory | 예매처 NOLticket | 문의 02-332-4902

자동차기자협회, 5월의 차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선정

상품성·편의사양 등 고득점
"다목적차 새로운 이동경험 선사"

현대자동차의 대표 다목적차(MPV) 스타리아가 전동화와 상품성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2026년 5월의 차에 현대자동차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 산하 올해의 차 선정위원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출시된 신차 및 부분 변경 모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이달의 차'를 발표한다. 평가 항목은 ▲내·외부 디자인 및 감성 품질 ▲안전성 및 편의 사양 ▲동력 성능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아우디 더 뉴 A6, 포르쉐 신형 911 터보 S와 함께 후보



현대차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주행 모습.

에 올라 50점 만점 중 37.7점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상품성 및 구매 의향도 부문에서 8.3점을 기록했으며 안전성 및 편의 사양 8점, 에너지 효율성 7.7점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원선웅 올해의 차 선정위원장은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전동화 파워트레인

을 통해 다목적 차량 특유의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이동의 정숙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모델"이라며 "특히 전기차 전용 아키텍처의 장점을 살린 낮은 지상고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은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개방감과 편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과 '더 뉴 스타리아 리무진'을 출시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은 지난 1월 2026 브뤼셀 모터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모델이다. 84.0kWh 용량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최고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를 발휘하며 1회 충전 시 최대 387km 주행이 가능하다. 전비는 kWh당 4.1km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 350kW급 충전기 기준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약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다. 리무진 모델은 하이브리드 6·9인승과 전기차 6인승 등 3가지 라인업으로 운영된다. 고급 내외장 디자인과 차별화된 탑승 경험을 통해 VIP 수요를 겨냥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i뱅크, 대학생 헌혈 캠페인 후원

i뱅크는 지역 대학생들의 생명 나눔 실천과 헌혈 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생 헌혈 캠페인 지원사업'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i뱅크는 총 800만원 상당의 헌혈 기념품을 지원했다. 신용필 i뱅크 부행장(앞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뱅크



해양진흥공사, 윤리경영 공모전 우수상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달 30일 '제6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재형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사장(가운데)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양진흥공사



하나은행, 시니어 자산관리서비스 강화

하나은행은 지난 6일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를 위한 '유연대용신약 및 자산관리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은정 하나은행 WM 본부장(왼쪽)이 홍지협(주)브릭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가운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SK, 성장 단계 소셜벤처 돕는다

'임팩트부스터' 출범... 사업자금 지원 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 협력 추진

SK는 성장 단계에 진입한 소셜벤처의 도약을 돕는 프로그램 '임팩트부스터'를 출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셜벤처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특성으로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SK는 초기 투자(Pre-A) 단계를 지나 시리즈 A·B 단계에 진입한 소셜벤처를 매년 약 10곳 선발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SK는 선발된 기업에게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와의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또 기업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1000만원과, SK 계열사와의 협력 과제를 실증할 사업에 필요한 자금 최대 6000만원

등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SK는 'SK프로보노', 'SE컨설턴트' 등 기존 소셜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연계해 사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기업에는 상품 컨설팅과 판로 확대를, 기업 간거래(B2B) 기업에는 사업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사업이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육성과 후속 투자 유치를 돕는다. 서울경제진흥원(SBA)과 협력해 실증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온올과 협력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지동섭 SV위원장은 "성장단계에서 기회를 얻지 못해 도약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통합적인 육성을 제공하는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남부발전, 공공기관 최고수준 안전관리

정부평가 7년 연속 2등급 달성

한국남부발전이 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관리 평가에서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았다. 중대재해도 8년 연속 제로를 기록 중이다.

7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전력 그룹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2019년 시범평가 포함) 2등급을 달성했다.

남부발전은 CEO의 '안전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남부발전 고유의 안전 특화 교육인 'KO SPO 안전혁신학교' ▲안전 취약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중소기업 안전 역량을 돕는 '안

전올타리 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2025년에는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한 '기본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성화했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공간인 '다운(多溫)-터'를 구축하는 등 상생하는 안전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7년 연속 최고 수준의 결과를 달성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자율안전 문화 정착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인사

◆ABL생명 △경영혁신본부장 직무대행 김선규

◆동양생명 △경영혁신본부장 상무 최근영

부음

▲이규정씨 별세, 이현수(동부건설 감사)

씨 빙부상 = 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9일. 02-3010-2000

▲윤봉순씨 별세, 한의상(팜젠사이언스 회장)·범상·관수·해경씨 모친상, 김현숙·안공주·백미순씨 시모상, 한대희(팜젠사이언스 부사장)·근화·재희·석희·성희·아름씨 조모상, 임소연씨 시조모상, 장운경·장태현씨 외조모상 = 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0일. 02-2258-5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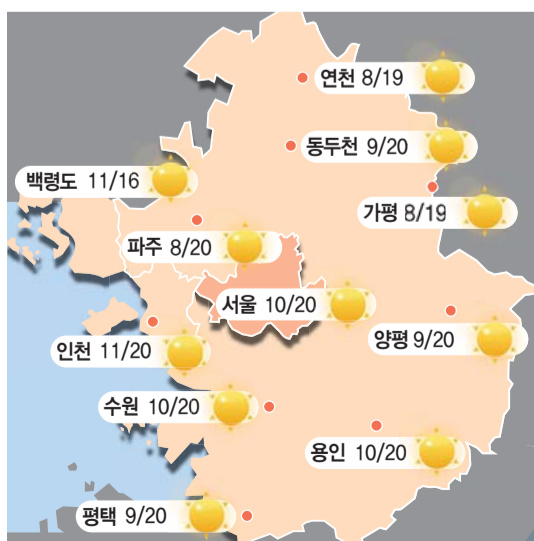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30 | 해질 / 19:28

5월 8일 (금)
음력 : 3월 22일

수도권 날씨
10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마일게이트, '스트리머 플라마켓' 연다

SOOP 협력... 아동·청소년 지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와 SOOP(숲)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에 나선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SOOP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2026 SOOP 스트리머 플라마켓'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플라마켓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숲 언더스탠드 예비뉴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SOOP 스트리머 과즙세연, BJ케이, 쿠빈 등이 참여해 애장품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조손·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일우재단, '일우미술상' 수상자 선정

한진그룹 산하 공익재단인 일우재단은 '2026 일우미술상' 수상자로 요이(Yo-E Ryou) 작가(사진)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요이작가는 비디오, 퍼포먼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제주 해녀 공동체와의 경험을 독창적인 예술 언어로 표현해온 차세대 작가다. 이번 수상자는 일우재단의 전시 공간인 일우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게 된다.

한진그룹은 2009년 '일우사진상'을 제정해 2022년까지 13회 공모전을 개최하고 총 36명의 사진작가를 지원해왔다. 2024년부터는 개편된 '일우미술상' 명칭으로 새롭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상담 '110' 통합 작업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긴급 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상담번호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상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기능과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110 상담 포털화'를 추진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JW중외제약

'당부, 스타틴' 캠페인

JW중외제약은 이상지질혈증환자들에게 질환 관리와 스타틴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당부, 스타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를 '당부(當付)'의 메시지로 전달해, 임의적인 치료 중단을 방지하고 복약 순응도를 높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타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반전의 맛

셰프의 킥
브라운 버터 오일



캐러멜라이즈드
에니언

벤트치즈번스



스모크
비프패티

By chef 비바닥한 천재

벤트비프버거

단품 8,800원 | 세트 10,700원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탐욕'



이정혁
西村브리핑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을 철폐하고 수십조 원의 이익을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모습은 공공의 이익을 망각한 치명적인 탐욕에 다름없다”로 시작된 이메일은 건설 현장의 거친 먼지 속에서 생활하는 지인이 보내온 것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순 수익 배분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생존과 경제 성장 입장에서 노조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걱정과 고언이 섞여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5월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성전자 성과급 잔치 논란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을 안긴다는 차원에서 지인이 보내온 편지 전문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이 세계를 호령하며 대규모 이익을 내기까지, 그것이 과연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노동자들만의 공로일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도체 산

업의 결실은 단순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진 경영인의 결단과 국민의 지원, 그리고 수많은 협력사의 희생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뼈아픈 고통 속에서 단행된 강제 합병, 위기의 순간마다 투입된 국민의 소중한 혈세, 그리고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구본무, 최중현 회장 같은 선각자적 경영인들이 보여준 ‘사업보국’의 사명감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 밤낮을 잊고 연구실을 지킨 과학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며 대기업을 뒷받침해온 수많은 협력사의 눈물이 지금의 이익을 만든 진정한 밑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 결실을 자기들끼리의 ‘성과 잔치’로 만들겠다는 파렴치함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최근의 성과는 수십 년에 걸친 국가적 성원과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협력사들의 희생이 응집된 결과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일구어낸 것처럼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하는 것은 역사와 공동체에 대한 배신 행위다.

지금 우리 경제의 다른 한 축인 건설업계를 바라.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

인해왔으나, 현재는 전례 없는 불황 속에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이 힘든 국면을 견디며 묵묵히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노조의 몰염치한 요구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산업 종사자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건설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노조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반도체의 선전으로 올해 1분기 국내 성장률이 1.7%로 반등했다. 이 귀중한 수익은 특정 집단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여서는 안된다. 상당 부분은 미래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하며, 산업 저변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고통받는 협력사들과의 상생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것이 국가 경제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유일한 길이다.

노조는 이기적인 투쟁을 멈추고 자중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민하며 공동체에 헌신해야 할 때다. 사악한 탐욕으로 무장한 노조는 입을 다물고, 진정으로 국가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한 길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ljh@metroseoul.co.kr

AI 활용은 늘었는데 일손은 그대로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을 높였다.” 최근 기업들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표현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AI 에이전트 도입이 확산하면서 기획서 작성, 번역, 고객 응대, 코딩, 콘텐츠 제작까지 AI 활용 범위도 빠르게 넓어진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AI를 써도 일손은 줄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분명 AI는 강력한 도구다. 초안 작성 속도는 빨라졌고 반복 업무 부담도 줄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다시 검수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생성형 AI 특유의 ‘그럴듯한 오류’도 문제다. 틀린 정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여전히 반복된다. 결국 실무자는 AI가 작성한 문장과 데이터, 출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AI가 대신 일한다”기보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에 가까운 셈이다.

업무 강도 역시 기대만큼 줄지 않는다. AI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빨라지자 기업들은 더 많은 결과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과거 하루에 하나 만들던 보고서를 이제는 여러 개 처리하고, 콘텐츠 역시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이 생산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업무 기대치도 함께 올라간 것이다.

특히 콘텐츠 업계와 IT 업계에서는 이런 변화가 두드러진다. 개발자는 AI 코딩 도구를 활용하는 만큼 더 빠른 개발 속도를 요구받고, 기자와 마케터 역시 AI를 활용

해 더 많은 결과물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효율화가 곧 노동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문제는 많은 기업이 AI 도입 자체를 성과처럼 여긴다는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보다 “우리도 AI를 쓴다”는 상징성에 집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AI가 업무 혁신 도구인지, 단순한 비용 절감 압박 수단인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 흐름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 산업 전반이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AI 도입 속도가 아니라,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의 일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느냐다.

AI는 이미 충분히 빠르게 현장에 들어왔다. 이제는 “무엇을 더 자동화할 것인가”보다 “사람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고 있는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vitna@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8일 (음 3월 22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단시일 내에 이루려는 꿈은 불길합니다. 60년생 손리에 따르면 하세요. 72년생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 뛰어들러 하지 마세요. 84년생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9년생 반드시 간절히 꿈이 이루어집니다. 61년생 항상 사소한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73년생 기본 경사가 있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85년생 긴장이 풀려 몸을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0년생 모든 일이 어려울 듯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62년생 정상계도로 올라서게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74년생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86년생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운을 타고 있습니다.



51년생 만인이 공로를 치하하며 받게 됩니다. 63년생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75년생 작은 소원이라도 결과는 크게 이루어집니다. 87년생 근면성이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52년생 큰 공로를 세워 만인의 추앙을 받게 됩니다. 64년생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76년생 꾸준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88년생 모든일이 막힘 없이 술술 풀립니다.



53년생 새로운 삶을 차분히 계획합니다. 65년생 너무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77년생 수양을 하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89년생 장래를 생각해 신중히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4년생 눈 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66년생 되도록 외지로 나가 마세요. 78년생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90년생 좋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55년생 매사에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67년생 생각도 못했던 일로 즐거워집니다. 79년생 소원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91년생 남과 다투지 마세요. 몸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56년생 남의 귀한 물건을 탐내지 마세요. 68년생 오늘은 집안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80년생 바라는 꿈이 너무 허황된 것 같습니다. 9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세요.



57년생 남의 소중한 재물을 탐내지 마세요. 69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니 이루어지기 만무합니다. 81년생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93년생 어려움이 점점 극에 달했습니다.



58년생 자신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할 때입니다. 70년생 먼 여행은 떠나지 마세요. 82년생 사업을 성급히 확장하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94년생 지금 시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59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71년생 본인의 의지를 과감하게 밀고 나가세요. 83년생 공짜는 한번 더 생각하고 얻는 것이 좋습니다. 95년생 차가운 것을 주의하세요.

김상희의四季

감사라는 약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했다. 평화롭게 지내는 쥐들이 있는 곳에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고양이를 지나가게 했는데, 고양이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쥐들의 몸을 살펴보니 쥐들의 위장에는 피멍이 들었고 심장은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고 한다. 결국, 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 쥐들은 공포와 긴장 속에서 스스로 무너진 것이라는 결론이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또 하나의 실험이 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입김을 고무풍선에 모아 액체를 만든 뒤, 이것을 쥐에게 주사했다니 쥐는 몇 분 만에 발작을 일으키고 죽었다. 이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저런 암에 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라는 것에 의사나 학자들이 동의한다.

스트레스로 인해 약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 저항력이 떨어지고 이는 암세포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 인간들의 타고난 숙명이어서 석가 모니는 생로병사의 사고(四苦)라 지적했지만, 존재로서의 인간살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벗어나지 못하면 즐기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적인 스트레스 연구의 권위자인 한스 셀리는 고별 강연 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한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의 대답은 한마디였다고 한다. “감사입니다.”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다. 복잡한 마음의 병에 대해 해결책은 너무나 단순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이 듣기는 들었어도 실천은 멀다. 장수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는 태도를 지녔다니 화날 일이 적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8		3
	7		5	6	2
		5		7	3
6	1	4			7
	5				9
9				4	1
		6	5		1
	4		1	9	6
5		6		1	4

9	7	8	6	2	3
6	1	4		7	
2					4
4	3		8		
	8			4	
		5		3	8
3					2
	7		4	5	6
5	6	3	2	9	1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1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숙성의 마법 ‘로저 구라트’... 시간으로 빛은 까바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4

어떤 스파클링 와인이든 한 모금 하기 전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기대가 생긴다. 삼페인만 할까, 못할까.

좋은 해에만 만든다는 빈티지 삼페인도 36개월 숙성인데 스페인에서 무려 75개월, 초장기로 숙성한 까바(CAVA)가 선을 보였다. 스페인 까바의 선구자 ‘로저 구라트’다.

에두아르도 카프데빌라(Eduard Capdevilla) 쿠네(C.V.N.E.) 수출 매니저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저 구라트의 핵심 철학은 장기 숙성”이라며 “다른 까바 생산자와 달리 모든 와인은 빈티지로만 생산해 깊은 풍미와 함께 테루아를 더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네는 1879년 스페인 와인 명산지 리오하에 설립된 와이너리로 산하에 로저 구라트를 비롯해 비나레알과 라발 등 주요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다. 초기 라벨의 필기체 표기에서 V가 U처럼 읽히면서 아예 [쿠네]라는 발음으로 자리잡아



로저 구라트의 장기 숙성을 상징하는 셀러로 지하 약 30m 깊이에 조성됐다. 1km에 달하는 터널형 셀러에서 로저 구라트 와인의 병 내 2차 발효가 진행된다.

버렸다.

먼저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까바는 스페인에서 삼페인과 같이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을 말한다. 이때 효모 양금과 접촉(리즈 컨택)하면서 깊은 풍미는 물론 질감이 더해진다.

로저 구라트는 1882년부터 페네데스 지역에서 까바를 만든 전문 생산자다. 특히 페네데스에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재배한 포도만 사용한다. 잘 익었으면서도 신선함이 살아있어 까바를 만들기 최적의 조건이다.

까바의 법적 숙성 기준은 9개월 이상이다. 로저 구라트는 리즈 컨택을 최소 12~

14개월 이상 진행한다. 더 우아하고, 신선하면서 깊이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프데빌라 매니저는 “로저 구라트는 수작업으로 직접 굴착한 깊이 30m, 총 길이 1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 셀러가 있다”며 “일년 내내 14도 안팎의 온도에서 다른 방해없이 천천히 숙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와인이라는게 마냥 묵한다고 좋은게 아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도 와인 자체가 시간을 견딜 힘이 있어야 한다. 재배가 힘든 환경임에도 샤도네이와 피노누아에 정성을 들이는 것도 그래서다. 기존 까바에 들어가는 토착 품종과 비교하면 산도나 구조감을 주면서 초장기 숙성



(왼쪽부터)로저 구라트 더 로저 마크 II 2017, 로저 구라트 그랑 레세르바 조셉 발스 2020, 로저 구라트 브뤼 밀레짐 2023, 로저 구라트 브뤼 로제 밀레짐 2022, 로저 구라트 브뤼 코랄 로제 2023. /나라셀라

이 가능해진다.

‘로저 구라트 더 로저 마크 II’는 로저 구라트가 어떤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지가 잘 보여주는 와인이다. 리즈 컨택 기간이 무려 75개월이다.

‘더 로저’로 이름붙인 이 초장기숙성 까바는 포도 재배가 가장 완벽하다 싶은 해에만 만든다. 첫 선을 보인 것이 마크 I’으로 2013년 빈티지였고, 2017년 마크 II가 두 번째다. 효모 침전물을 빼내는 데고르주망을 출고 시점에 맞춰 진행한다. 접점을 감안하면 숙성 기간이 거의 8~9년에 달한다.

2017 빈티지는 까바에 전통적으로 쓰이는 토착품종 차렐로·마카베오·파레아

다 등과 함께 피노누아와 샤도네이를 각각 15%씩 섞었다. 잔을 채운 고운 기포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과 복숭아 등 과실과 말린 꽃향, 여기에 오랜 숙성에서 나온 구운 빵과 견과류 향이 복합적이다. 입안에 남는 미네랄감도 인상적이다.

‘로저 구라트 브뤼 밀레짐 2023’은 토착품종 차렐로·마카베오·파레아로 만들었다. 15개월을 숙성했으며, 균형감 있는 산도와 질감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까바다.

‘로저 구라트 그랑 레세르바 조셉 발스 2020’은 토착품종 외에 샤도네이와 피노누아를 각각 20%, 10% 블렌딩했다. 리즈 컨택 기간은 36개월이다. 밀레짐과 비교하면 확실히 구조감과 신선한 산도가 느껴지며, 짭짤한 미네랄감으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릴 까바다.

로저 구라트의 로제는 피노누아 품종이 들어가 스타일이 확고하다. 스페인에서 피노누아로 만든 로제 까바는 찾아보기 힘들다.

‘로저 구라트 브뤼 코랄 로제 2023’은 가르차차 70%에 피노누아 30%를 섞었다. 최근 트렌드에 맞춰 신선하고 마시기 편한 로제로 만들었다.

/smh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CJ 4DPLEX 기술로 ‘K-콘텐츠’ 수출

송출국가 69개국으로 늘어

극장 산업의 침체와 OTT의 공세 속에서도 한국 고유의 상영 기술이 K-콘텐츠의 글로벌 영토를 넓히는 ‘전략 병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CJ CGV의 자회사 CJ 4DPLEX는 SCREENX와 4DX를 통해 전 세계 누적 관객 200만 명을 기록하며, 한국 영화의 해외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7월 업계에 따르면 CJ 4DPLEX는 지난 2015년 9개국에 불과했던 K-콘텐츠 송출 국가를 현재 69개국으로 늘렸다. 연간 글로벌 관객 규모 역시 2015년 3만 명에서 2025년 30만 명(추산)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관객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에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한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를 정확히 꿰뚫은 결과다. ‘파묘’, ‘부산행’ 등 장르적 특색이 짙은 영화뿐 아니라, 아티스트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하는 K-POP 공연 실황이 이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영화계 및 유통 관계자들은 이러한 기술 특별관의 확장이 한국 영화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K-무비의 수출이 판권 판매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SCREENX나 4DX 같은 특수 포맷 제작을 통해 해외 극장 수익 배분(RS)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며 “특



SCREENX 상영 장면 연출 이미지. /CJ CGV

수 상영 포맷은 불법 복제가 불가능해 콘텐츠 IP 보호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영관 대비 높은 티켓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한국 영화의 실질적인 수출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CJ 4DPLEX는 단순히 기존 영상을 변환하는 수준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AI와 CG/VFX를 결합해 ‘기술 맞춤형 콘텐츠’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TS, 멕시코 대통령과 환담... 5만명 운집

멕시코 시티 공연 전석 매진 기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멕시코 월드투어 공연을 앞두고 멕시코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대통령궁 발코니에서 5만여 명의 인파와 마주하며 현지를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BTS는 6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의 공식 초청을 받아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약 40분간 환담을 나눴다. 세인바움 대통령은 이들의 음악이 우정과 평화, 그리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높이 평가하며 이들의 방문에 각별한 환대를 표했다.

방탄소년단은 세인바움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 시티의 심장부인 소칼로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모인 약 5만 명 규모의 팬덤 ‘아미’(ARMY)는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멕시코의 심장 속에는 언제나 BTS가 있습니다’, ‘웰컴 투 멕시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이들을 반겼다.

이날 리더 RM은 스페인어와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초대와 환대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다가올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으며, 멤버 뷁 역시 멕시코 팬들에 대한 그리움과 현장의 대단한 열기에 대



방탄소년단과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왼쪽에서 다섯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 찬사를 보냈. 특히 뷁가 내년 재방문을 약속하자 세인바움 대통령 또한 본인이 직접 재방문을 요청했음을 밝히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팬들의 환호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7일부터 사흘간 에스타디오 GNP 세구로스에서 개최되는 BTS의 멕시코 시티 공연은 이미 전석 매진을 기록 중이며, 멕시코 시티 상공회의소는 이번 방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약 1억 750만 달러(한화 약 1,557억 원)로 추산했다. 최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과 타이틀곡 ‘스윘’(SWIM)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석권한 BTS의 이번 행보는 멕시코 현지에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실상 국가적 행사급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규준 기자 ch9720@

롯데시네마, 환아·가족 위한 ‘봄나들이 상영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에 추억 선사

롯데시네마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소셜 캐릭터 브랜드 민들레마음과 함께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아와 가족들을 위한 ‘봄나들이 상영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기 투병으로 영화관 방

문이 쉽지 않았던 환아와 가족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롯데시네마는 행사에 참여한 환아와 가족들에게 팝콘과 음료를 제공했으며, 영화 포토존에서는 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의료진, 사회복지사들의 응원 영상도 상영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참가자들은 영화 ‘슈퍼 마리오 갤럭시’를 관람했으며, 상영 이후에는 가족 단위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이벤트도 진행했다.

민들레마음 측은 “아이들이 문화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시네마는 오는 6월 민들레마음과 협업해 환아들의 그림을 활용한 콜라보레이션 굿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미군, 이란항 입항 중인 이란 선적의 빈 유조선 공격, 파괴
▲“러시아 돈 받지마”... 베네치아 비엔날레 앞 ‘분홍 복면’ 시위 /사진 뉴스스

▲스위스 “美·이란 평화협상 개최 의향...모든 당사자와 접촉 중”
▲“기밀로 이란 협상 베딩 말라”...美 국무부, 외교관들에 경고

▲“美재무, 방중 직전 11~13일 방일...다카이치 총리 등 면담”
▲일본·튀르키예, ‘드론 동맹’ 가시화...무인기 공동개발 나선다



주류업계
라이트·무알코올
여름성수기 공략
L1



Life

SK바이오팜
영업이익 250%
'빅 바이오텍' 가속
L2



화려함 덜고, 품격 채우다... 정원에 깃든 '사일런트 럭셔리'

아파트의 미학(美學)

잠실 르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 내려 사거리 방향으로 걸으면 유리 외관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잠실 르엘은 단지 초입부터 하이엔드 브랜드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낸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들어선 '잠실 르엘'은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LE-EL)'이 적용된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3개 동, 총 1865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고층부 스카이크뮤니티에서는 도심 전망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잠실 르엘은 2호선 잠실나루역을 비롯해 잠실역(2·8호선), 송파나루역(9호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단지 앞 올림픽로를 통해 테헤란로 등 강남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고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도로 이용도 수월하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몰, 롯데마트 등 대형 쇼핑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롯데월드와 롯데시네마 등 문화·여가시설도 가깝다. 단지 내 어린이집과 함께 잠동초·방이중·잠실중·잠실고 등이 도보권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양호하다.

잠실 르엘에 적용된 '르엘' 브랜드는 롯데건설이 2019년 선보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다. 한정판을 뜻하는 '리미티드 에디션(Limited Edition·LE)'과 시그니엘·에비뉴엘 등 최상위 브랜드에 쓰이는 'EL'을 결합한 이름이다. 르



잔디광장과 수경시설,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휴식공간 '스퀘어라운지'.

1865세대 규모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뛰어난 생활 인프라, 교육환경 갖춰

절제된 조경 디자인... 단지 품격 높여 자연과 공존하며 쉬어가는 수경시설 리조트형 주거 콘셉트 담은 휴게공간

한강 물결 담은 산책로... 사계절 구현 호텔식으로 꾸민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상징수, 예술작품 등 고품격 라운지

엘이 내세우는 대표 콘셉트는 '사일런트 럭셔리(Silent Luxury)'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가치와 완성도를 지향한다.

잠실 르엘의 대형 문주는 불필요한 장식을 덜어내고 밝은 톤의 석재 마감으로 완성해 깔끔하면서도 묵직한 인상을 남긴다. 단지 곳곳에 사용된 브론즈 계열의 금속 마감은 르엘이 추구하는 '사일런트 럭셔리' 감성을 드러낸다. 화려함을 앞세우기보다 절제된 디자인으로 조용한 품격을 보여준다.

단지로 들어서면 '수생비오톱'이 맞이한다. 생명을 뜻하는 그리스어 '비오스(Bios)'와 땅, 영역을 의미하는 '토포스(Topos)'라는 의미를 담아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 공간을 구현했다.

크고 작은 돌들로 둘러싸인 연못 안에 분수가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삼색버들, 붓꽃, 참억새 등 다양한 수종을 심고 곤충과 새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도심 속에서 입주민과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지 내 메인 휴게공간은 잠실 르엘의 '리조트형 주거' 콘셉트를 가장 잘 보여준다. 대형 수목이 자리잡은 넓은 잔디광장을 중심으로 수로와 분수, 휴게 데크가 둘러싸는 구조다.

원목 테이블과 라운지 체어, 개방형 티하우스 등 다양한 휴게시설도 눈에 띈다. 밝은 석재 기둥과 긴 회랑형 차양은 신전을 걷는 듯한 느낌을 더한다.

'블라썸웨이브'는 한강의 물결을 정원으로 풀어낸 초화 특화 공간이다. 구불구불 이어

지는 산책로를 따라 낮은 초화와 관목, 소나무가 조화를 이루며 자연스러운 풍경을 만든다. 붉은색 벤치와 연꽃빛 식재가 어우러져 있다. 계절마다 다른 초화가 피어나도록 설계돼 공간의 색감이 끊임없이 변한다.

'스퀘어라운지'는 넓은 잔디광장과 수경시설, 휴게공간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이다. 연못 위로 잔잔한 물소리가 이어지고, 일렬로 늘어난 대왕참나무가 공간에 아늑함을 더한다.

광장 한가운데에는 김황록 작가의 작품 '사물의 꿈-생명'이 보인다. 식물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광장 중심에는 소나무에는 오래도록 변치 않는 생명력을 담았다. 특히 '깨끗하고 오래 번영하는 마을'이라는 뜻의 쌍학리 지역에서 자란 나무를 옮겨와 단지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물로 배치했다.

야외 공연장이나 호텔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대형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됐다. 원목 데크와 곡선형 벤치, 테이블이 넓게 배치돼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그늘막 아래 놓인 라운지 체어와 테이블은 카페 테라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변을 감싼 수목과 초화들이 도심 속 작은 휴양지 같은 느낌을 더한다. 주민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햇살 아래 잠시 쉬어가기 좋은 공간으로 꾸며졌다.

상가와 연결되는 아파트 초입에는 멋스러운 수형의 향나무가 눈길을 끈다. 왕실에서 권위와 장수를 상징하던 향나무는 장수를 기원하는 상징수로 사용됐다. 향나무가 짙은 향으로 부정한 기운을 막아줄 것이라는 입주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



1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공간. 2 리조트를 연상시키는 수경시설. 3 잠실역 방면에서 바라본 '잠실 르엘' 아파트의 스카이크뮤니티. 4 단지 내 조형물. /성채리 인턴기자



4 단지 내 조형물. /성채리 인턴기자



3 잠실역 방면에서 바라본 '잠실 르엘' 아파트의 스카이크뮤니티. /성채리 인턴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최강 중국 상대 '런던의 기적' 쓸까...女탁구 애이스 신유빈 손에 달렸다
▲男탁구 오준성, 또 세계 1위 중국 잡을까...“막 내의 패기 보여드리겠다” /사진 뉴스스

▲한화 박준영·배승수, 2026시즌 KBO 퓨처스리그 투타 루키상 수상
▲277일째 무승 수령...롯데 '안경 애이스' 박세웅, 6전7기 첫 승 도전

▲불교 이론서부터 사색 에세이까지...쉽게 풀이 쓴 불교 서적 잇따라
▲국립오페라단, 문학·미술과 손잡다...도서 큐레이션·미술관 오페라 갈라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